메트로 2014년 4월 24일 목요일

친구들의 묵념 23일 오전 경기도 안산 올림픽기념관에 침몰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를 위한 임시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학생들이 헌화 후 묵념하고 있다 <관련기사 2·3·4면> /연합뉴스

"집단 트라우마 고비 넘기자"

세월호 참사 여파 – 움츠러든 국가 경제, 침통 국민 외출 줄고 행사는 취소, 여행업계 매출 감소 직격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여드레가 지났다. 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사망자나 실종자 가족의 아픔은 이미 극에 달해 있다. 게다가 끊이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무능력한 정부의 위기관리 실태로 국민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들은 외출을 줄이고 지갑을 닫았고 이로 인해 유통과 여행업계는 매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각종 행사에 마케팅 줄 취소

이번 세월호 참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나라 전체를 침체에 몰아넣고 있다.

사망자와 실종자를 애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예정돼있던 각종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지역 축제의 경우 다음달 2~11일 열리려던 함평나비대축제가 취소됐고 다음달 1~6일 예정이던 담양 대나무축제는 6월로 연기됐다.

4~5월에 예정됐던 대학 축제 역시 국민대·서울대·이화여대·한양대 안산 에리카 캠퍼스 등은 이미 취소를 결정했으며 고려대와 서강대·연세대 등도 취소를 논의 중이다.

기업의 마케팅과 신제품 론칭 행사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금호타이어·페라리·일렉트로룩스 코리아 등은 신제품 론칭 행사를 연기했다. LG전자는 26~27일 잡혀 있던 손연재의 리듬체조 갈라쇼를 하반기로 미뤘다. 롯데주류는 예상자게 첫 맥주 제품인 '클라우드'를 출시했지만 관련 마케팅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여행업계, 수학여행 취소 등 직격탄

봄철 성수기를 기대했던 여행업계는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여행사는 학생·공무원 등의 단체 여행 취소율이 지난 18일 기준으로 90%를 넘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4월 중 출발 예정이던 김포~제주 노선이 거의 취소됐다. 현 분위기라면 5월 출발 노선도 취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도 수학여행단 항공편이 모두 취소됐다.

하나투어 측은 국내 여행을 계획 중이던 학생 1700여 명의 예약이 취소됐거나 출발 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외출 자제, 유통업계 매출 급감

국민들의 야외 나들이도 줄어들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16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지하철 1~4호선 수송인원이 등기간 전주에 비해 74만 명가량 줄었다. 지하철 이용량이 가장 많은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에는 전주보다 약 42만 명이 줄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16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지하철 5~8호선 승하차 인원을 집계한 결과 전주 대비 약 50만 명가량 줄었다.

마찬가지로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 이용객도 전주 대비 약 33만 명 줄었다. 유통업계 매출 급감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집단 트라우마

가장 큰 문제는 구조된 사람들이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종자 가족들과 구조대, 사고 소식을 접한 일부 국민들도 간접적인 외상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 전체가 '집단 트라우마' 상태에 놓인 것이다.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할 수 있으며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신체적인 손상이나 생명이 위협받는 사고에서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정신 질환으로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다. 또 사고를 목격하거나 사고를 당한 가족, 친구 등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도 이 질환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 <2면에 계속>

오하마나호도 구조 변경

인천~제주 – 25년 된 6322t급

세월호와 함께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하던 청해진해운의 오하마나호(6322t급)도 구조가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청해진해운에 따르면 오하마나호는 2003년 3월 국내 첫 취항 당시 여객 정원이 695명이었지만 현재 정원은 937명으로 늘어났다. 화물수송능력도 컨테이너 적재한도가 107개에서 180개로 늘어났다. 다만 차량 수송 능력은 승용차 63대, 8t 트럭 42대에서 승용차 50대, 5t 트럭 40대로 다소 줄었다.

1989년 건조된 오하마나호는 세월호와 규모가 비슷해 쌍둥이 여객선으로 불렸다.

청해진해운은 일본에서 '하케보노호'라는 이름으로 운항하던 오하마나호를 마루에이페리로부터 사들였다. 마루에이페리는 2013년 세월호를 청해진해운에 매각한 회사이기도 하다.

앞서 세월호는 2012년 10월 도입 당시 전남 영암에서 객실 증설 공사를 거쳐 여객정원이 804명에서 921명으로 늘었다.

/윤다혜기자 ydh@

유병언 자택 등 '전방위' 압수수색

기독교복음침례회 포함 10여곳…인천·목포·부산서 '사정수사'

검찰이 23일 세월호 침몰 경위와 선박회사 청해진해운 오너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 목포에 설치된 검경합동수사본부와 인천지검에 이어 부산지검도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경위 파악 위주였던 검찰 수사는 이제 실소유주 유병언 일가의 경영 개인 비리와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로까지 번져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 대대적인 '사정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인천지검 유병언 일가 수사 집중

인천지검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족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통'으로 꼽히는 최재경 지검장의 지휘 아래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김회종 2차장, 정순신 특수부장 등이 포진해 있다.

유씨 일가에 제기된 의혹에는 기업 범죄에 대한 특별수사 대상이 되는 거의 모든 혐의가 망라돼 있다. 여기에 사진작가 '아해'로 활동 중인 유씨가 임직원들에게 자신의 사진 작품(달력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는 개인 비리 의혹까지 포함됐다.

이날 오전 인천지검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서울 서초구 자택을 포함한 인천 중구 청해진해운 사무실, 강남구 역삼동 계열사 (주)다판다 사무실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된 서울 용산 소재 종교단체 사무실도 포함됐다.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유 전 회장과 이 회사 고위 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의 장인이 설립한 선교단체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열사 회계 서류와 내부 보고문서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목포 수사본부 선원 추가 체포

목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 선박 운항상의 문제점과 구조상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고 있다.

급격한 변침(항로 변경)과 선박 구조 변경, 증톤 과정 등을 중심으로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인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선장과 선원 등의 고의·과실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준석 선장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 조타수 등 6명을 구속한 상태다. 이어 이날 조기수 이모(55) 박모(58)씨,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에 대해 추가 체포했다. 이에 따라 선박직 승무원 전원이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은 모두 15명으로 전원 구조됐다. 수사본부는 이들에 승객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배를 침몰하게 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이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다판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료 등이 담긴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선 해운업계 전반적 비리 수사

부산지검은 선박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선급(KR)을 비롯해 해운업계 전반적인 비리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한국선급은 선박과 해양환경 항만시설 보안 등 바다와 관련한 안전을 책임지는 검사 인증기관이다. 주요 업무 분야는 크게 선박 관련 서비스 분야와 정부 대행 검사업무로 나뉜다. 검찰은 한국선급이 각종 검사와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선준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은근슬쩍 올리는 분양가…부메랑 우려

기자 수첩

박선옥 <경제산업부 기자>

최근 2~3년간 침체일로를 걷던 분양시장이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청약 열기를 틈타 은근슬쩍 올라가는 분양가는 우려스럽다.

대부분이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한 '착한 분양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단지들은 VVIP를 대상으로 하는 고급 상품이라거나 최첨단 기술이 적용됐다는 등의 이유로 주변 아파트와의 비교를 거부하며 고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까지 비싸게 판다고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의 분양시장이 스멀스멀 올라가는 분양가를 감당할 만한 체력이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사실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에도 지금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저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유동성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이어졌고, 건설사들은 분양 물량을 늘리고 은근슬쩍 분양가도 올렸다. 그리고 그 결과는 깊은 침체였다.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었다지만 2·26대책 발표 하나로 휘청일 만큼 체력이 약한 상태다. 자연스러운 회복이 아닌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한 데 따른 한계다. 결국 당장의 이익을 위해 건설사들이 2009년과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을 때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일반 국민도 정신적 외상 다스려야

<1면에서 계속>

우선 환자 본인에게 안전한 상황에 있다는 느낌을 주는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며 각종 신체 반응을 제어하기 위한 약물 복용도 중요하다. 또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이완법 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배활리 필지병원 외상심리치유센터 교수는 "이번처럼 큰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감정이 지속된다면 뉴스 자제를 피하고 전문가와의 상담과 진료를 통해 안정감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양성일 [illegible]

세월호 예산지원 논의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석준 제2차관(왼쪽)과 세월호 침몰사고 예산지원 보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핵실험 중단 설득해 달라"

박 대통령, 시진핑과 통화 - "풍계리 가림막 제거"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북한의 잦은 핵실험 징후와 유동적인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와 추가 핵실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준데 대해 감사하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역내에서의 군비 경쟁과 핵 도미노 현상을 자극해 동북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자 회담 재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 프로세스와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는 만큼 북한에 대한 추가적 설득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정세에서 긴장 고조를 막는 것은 한중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각간 대화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북한은 언제든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고 사실상 모든 준비가 됐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똑같이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특정 갱도에 설치됐던 가림막도 치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옅어진 희망 수색은 계속

단원고 학생 20여구 추가 발견 · 안산 임시분향소선 '눈물의 영결식'

물살이 평소보다 크게 약해지는 소조기가 끝나감에 따라 세월호 침몰 사고 8일째인 23일 민·관·군 합동구조팀의 실종자 수색작업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합동구조팀은 이날 함정과 민간 어선 등 총 212척과 육·해·공군 및 해경, 소방 등 항공기 34대, 해군과 해군구조대, 소방 잠수요원, 민간 잠수사 등 구조대 550여명을 투입했다.

구조팀은 밤사이 조류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수색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선박의 산소공급 장치에 에어호스를 연결한 투구 모양의 장비 '머구리'를 활용해 3~4층 선수와 4층 선미 객실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사고 해역 수온은 11.6도, 파고는 0.5m로 전날과 비슷하지만 바다 속은 다소 탁한 상태"라며 "구조팀이 3~4층 다인실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에어포켓(선내 공기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기대를 모았던 원격조종 무인잠수정(ROV)과 무인탐사 '게 로봇'(크랩스터) 등은 많은 방해물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철수했다.

구조팀은 이날 새벽 7구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고, 오전 6시30분께 수색작업을 재개해 10여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날 오후 11시 현재 사망자는 156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46명이다. 생존 소식은 아직 없다. 129~150번째 발견된 시신은 모두 학생인 것으로 추정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안산 단원고 희생 학생들을 위해 이날 오전 9시 안산올림픽기념관에 마련된 임시분향소에는 각계 각층의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안산에서만 이날 하루 학생 25명이 영결식이 엄수됐다.

/조선준기자 mjian@metroseoul.co.kr

국세청, 유병언 탈세여부 정밀분석

국세청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탈세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청해진해운 및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천해지를 비롯해 4곳의 회사에 직원 수십명을 보내 관련 장부 등 대거 확보한데 이어 현재 이들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밀도있는 조사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 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열사들이 경남 고성, 제주 등지에 흩어져 있는 만큼 부산지방국세청 등 관할 지방국세청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유 전 회장 일가의 회사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이들 회사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 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채권 확보에 나서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지금 객실에 있어요" 유포자 검거

세월호 침몰사건의 선내 생존자인 것처럼 가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모(20·대학휴학생)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23분 자기 페이스북에 "제발 이것 좀 전해주세요 제발. 지금 식당 옆 객실에 6명 있어요. 혼노 안되어 유리깨지는 소리 나구요. 아무것도 안보여요. 빨리 식당쪽 사람많아요 제발 빨리 구조해주세요"라는 허위 내용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월호 침몰사건 사망자 A씨의 페이스북 사진과 GPS 위치정보 등의 허위내용을 편집, 마치 A씨가 페이스북으로 '구조해달라'는 글을 올린 것처럼 자기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글을 읽고 친구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줄수록 페이스북 계정 단가가 올라간다는 점에 주목해 김씨가 돈을 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다혜기자 yeh@

가족 건강도

23일 오전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이 군의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잠수사들 강행군 '잠수병' 호소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에 대한 수중 수색에 나선 잠수사들이 연일 계속된 필사의 구조 작업으로 '잠수병'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8일째인 23일 오전 구조 수색 작업을 위해 투입된 민·관·군 합동구조팀 잠수사 10명이 마비 증세와 피로 누적 등을 보여 청해진함과 평택함 내에 마련된 체임버에서 감압 치료를 받았다. 22일 오후에는 해군 UDT 소속 A 상사가 두통과 팔 마비 증상으로 상당 시간 감압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잠수병은 깊은 바다에서 잠수부들이 압축된 공기를 마시는 과정에서 몸속으로 들어간 질소가 원인이다. 심할 경우 심장마비, 호흡 곤란을 일으켜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

해군 해난구조대(SSU)에서 심해 구조활동을 했던 한 전문가는 "지금 상황이 시급하니까 잠수사들이 매뉴얼을 지키며 수색활동을 할 수 없다"며 "민·관·군 합동구조본부 차원에서 잠수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천안함 한주호 준위 때와 같은 2차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태종기자

무재해사업장 인증패 수여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도원은 최근 무재해를 달성한 안산도시개발(주) 등 4개 사업장에 무재해목표 달성 인증패 수여와 함께 유공직원을 표창했다.

무재해를 달성한 사업장은 3배를 달성한 안산도시개발을 비롯해 2배를 달성한 타코스, 1배를 달성한 대림산업(주), 무재해 준공을 한 동부건설(주) 등 4곳이다.

특히 안산도시개발은 안산시 등 지역에 냉난방을 위한 열과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업체로서 공정안전관리 및 자율 재해예방활동 강화로 2010년 1월1일 무재해운동을 개시해 지난달 10일까지 무재해목표 3배를 달성했다.

송파구 송례中 오늘 개교

서울시 송파구 위례순환로 429에 위치한 송례중학교가 24일 오전 10시30분 교내 송마루관에서 개교식을 한다.

송례중학교는 위례신도시(송파권)에 신설된 첫 중학교다. 전체 14학급 규모로 학생 수는 282명이다.

마을공동체 활성 적극 지원

서울시 금천구가 '마을공동체담당관'을 통해 주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부부모들이 함께 아이들도 돌보고 이야기를 나눌 장소가 없으면 지역에서 빈 공간을 제공, 모임을 위한 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5월 구민정보화 교육 개강

서울시 동대문구는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5월7일부터 구민정보화교육을 개강한다고 23일 밝혔다.

강좌구성은 처음 컴퓨터를 접하는 주민들을 위해 컴퓨터 기초과정과 스마트폰·인터넷 활용까지 총 15개의 분야로 이뤄져 있다.

'성신인' 공동체 의식 강조

성신여대는 공통교양강좌 '성신인'을 개설해 1학년 학생에게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성신인 강좌는 ▲박물관에서 만나는 성신 ▲난향지와 함께 하는 너와 나의 만남 ▲'S' 팀 프로젝트 등 3가지 미션으로 진행된다.

이와함께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토크 콘서트도 진행된다.

한성대 축제 대신 모금행사

한성대가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의 슬픔에 동참하는 의미로 교내 축제 일정을 취소하고, 나눔과 기부행사를 진행한다.

한성대 관계자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내달 7일부터 3일간 예정됐던 '2014 대동제' 전면 취소를 논의했고 학교도 취소를 확정했다"며 "축제 대신 헌혈, 성금모금 등 행사를 계획해 모금된 성금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사귀환 기원 모금운동 대전 한남대 학생들이 23일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남대 제공

"신체·정신적 치료도 전액지원"

정부 "자원봉사자·구조활동 참여 잠수사 포함"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승선자와 그 가족은 물론 자원봉사자와 민간잠수사 등에 대한 신체·정신적 치료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3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밤 대책회의를 통해 승선자와 승선자 가족, 자원봉사자나 민간잠수사 등 구조 활동에 참여한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전액 실비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치료 비용을 사전에 지급보증하고, 전액 국비로 사후 정산할 방침이다.

대책본부는 또 이날부터 팽목항에 간이 영안실을 운영하며 검안의 시 11명과 검시 인력 2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DNA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원하는 가족들에게 사망자의 소지품,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거주지의 영안실로 시신을 우선 옮기기로 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사망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진도 팽목항에 폴리스라인을 설치·운영 중이라며 언론에 협조를 당부했다. /조현정기자 jhj@

서울 6년간 치매시설 480곳 늘린다

서울시가 치매요양시설을 2020년까지 480여 곳 늘리겠다며 '치매 요양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인 데이케어센터를 480여 곳 확대해 치매환자 판정을 받은 등급자의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수요 대비 시설 정원)을 현재 62.3%에서 2020년까지 80%로 높일 계획이다.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치매환자를 위한 등외자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도 올해 1곳 시범 운영되며, 재가노인지원센터는 50곳까지 늘린다.

치매 조기검진 대상은 2단계로 확대해 올해부터 70~75세이 검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검진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중증으로 발전하는 걸 막기로 했다. 이를 통해 치매 조기검진율을 현재 37.2%에서 2020년까지 90%로 높이는 게 목표다.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인증제'도 도입된다. 최초 인증을 받은 시설에 1000만~2000만원의 환경개선비와 대체요양보호사 인건비 등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장윤정기자

기업인 협박 조폭 구속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23일 지역의 중견 기업인 등으로부터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원주지역 폭력조직 두목 김모(5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조직 종로기획파 두목인 김 씨는 2010년 5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지역 중견 기업인 6명에게 9억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5월에는 1억원의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A 씨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으려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폭력조직 두목의 위세를 이용해 담보가치나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했으며 대부분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다혜기자

간절한 마음으로 23일 오전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노란 리본을 묶고 있다 /연합뉴스

이집트 관광버스 테러, ABM 소행 결론

이집트 정부가 지난 2월 발생한 한국인 탑승 관광버스 테러가 현지 무장단체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3일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한 이집트 보안청은 테러 방식과 폭발물 구성 요소, 제반 정황을 분석한 결과 자신들이 테러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ABM 소행이라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당국은 또 지난달 20일 ABM 은거지를 급습, 6명을 사살하고 8명을 검거했으며 앞으로 완전한 소탕 작전을 전개할 계획임을 우리 정부에 알렸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이집트 정부는 이번 테러가 한국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이집트 관광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 관광객을 노린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집트 정부 대테러 활동에도 시나이반도에는 ABM을 포함한 테러집단이 암약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방문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마약중독자서 '신부'로

metro Canada

길거리서 사랑 실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마약중독을 이겨내고 신부가 된 남성이 화제다.

'빠라디' 신부는 이미 몬트리올에서 유명인사다. 신부복을 경갑하게 착용했지만 팔에 일련의 문신을 새겨넣은 그의 모습이 독특하기 때문. 신부는 매일 길거리를 걸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피고 아이들을 입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그는 "우리의 임무는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거리의 어두움을 깨려 노력한다"고 밝혔다.

빠라디 신부는 길거리 생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25세에 처음 몬트리올에 온 그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고립감과 절망을 극복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수중에 돈이 한푼도 없던 그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다. 그는 "길에서 코카인 판매를 시작했다. 이후 더 강도가 센 마약도 팔았다"고 회상했다. 판매 중 마약을 접한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당을 찾게 됐으며 그게 신부가 된 과정이었다.

성당의 도움을 받은 그는 10년간 철학, 신학, 마약중독과 관련한 공부를 한 뒤 마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에 이르렀다. 올해로 57세가 됐지만 성당에 소속되길 거부하며 길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죽을때까지 내가 있을 곳은 길위"라고 말했다.

/조엘리 휘버 기자·정리=황주희 인턴기자

도심 레이싱 적발시 10년 구금

metro Brazil

브라질에서 '자동 레이스'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년 구금이나 1000 헤알(45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브라질리아 사의회는 최근 교통법을 개정해 도시 내 자동 경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지우마 호우세피 대통령의 승인만을 남겨 두고 있는 상태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단순 레이스의 경우 2년 형을 선고받지만 경주 중 타인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경우 3년에서 최대 6년을 구형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는 최대 10년 간 감옥에 수감된다. 현행 교통법에서는 최고 형벌이 2년에 그치기 때문에 법안이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오바마 방한때 북한 핵실험?

美 '38노스', 목재 반입 등 포착 — 가능성 낮아

오는 25~26일 방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웹사이트 '38노스'가 분석했다.

최근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갱도 터널 입구에서 대형상자와 박스, 목재를 반입하는 활동이 포착됐지만 핵실험 감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38노스는 밝혔다.

38노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업위성 사진과 과거 관찰 결과에 비춰 핵실험이 실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업위성이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를 이용해 북한의 핵실험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며 "북한은 세차례만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준비에서 실험에 이르는 일정표를 정확하게 간파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을 국빈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연내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에 대한 미일 동맹 차원의 대응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조기 타결 방안도 의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일본과학미래관에서의 강연, 황궁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25일 한국을 방문한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영국 왕세손비 DJ 변신 23일 현지시간 호주 애들레이드 지역의 청소년 센터에서 케이트 미들턴(가운데) 영국 왕세손비가 DJ 장비를 관저보고 있다. 윌리엄(왼쪽) 왕세손 일가는 3주간의 일정으로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 중이다. /AP 연합뉴스

中 50인승 이상 선박 대피훈련 의무 실시

중국이 자국 선박에 대피훈련을 의무화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한다. 한국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교훈 삼아 대참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23일 법제만보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최근 각급 해사관리기구와 해운회사, 선박 검사기구 등에 긴급통지문을 보냈다.

통지문에 따르면 50인승 이상 선박은 다음달 1일 전까지 수상에서 선박을 버리고 대피하는 훈련과 소방 및 인명구조 훈련을 의무적으로 1차례 실시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선원의 안전교육, 선박의 주요 설비와 구조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통지문에 담겨있다.

교통운수부는 "시스템을 통해 부적합한 선박의 운항을 막아야 한다"면서 각 기관에 비상근무 및 상부 보고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조선미기자

美 경제 '기지개'…한국 '청신호'일까

2분기 후반 수출 개선세 가시화 전망

겨울의 긴 터널을 묵묵히 견뎌낸 미국 경제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다. 시장에서는 2분기 이후 미국의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도 수출 호조세 등으로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혹한의 여파에서 벗어나 최근 수주 동안 활동적인 모습을 나타냈다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연준은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위치한 12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경제가 보통에서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날씨가 풀리면서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 대부분 지역에서 소비 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카고는 성장세를 기록했고, 뉴욕과 필라델피아도 연초의 혹한으로 인한 부진에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는 연초 극심한 혹한으로 부진을 겪었다. 베이지북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도 7개 지역에서 증가를 기록했고, 제조업은 대부분 지역에서 호전됐다.

가계와 기업의 향후 경기상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는 4월에 전달보다 2.6포인트 상승한 82.6으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았고, 3월 중소기업 낙관지수도 전월대비 2.0포인트 오른 93.4였다.

이처럼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봄기운이 감돌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기가 정상화되면 2분기 중후반부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 개선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진영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제성장의 주축인 민간부문이 고용 회복 등에 힘입어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며 "글로벌 경기 상승 동력에 따른 수요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기기자 ...@metroseoul.co.kr

차세대 '3D프린팅' 육성

정부, 발전전략 수립

정부가 차세대 핵심기술로 꼽히는 3D 프린팅 분야의 산업육성을 위해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3D프린팅 산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발전전략은 양 부처가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해 수립한 것이다.

3D프린팅은 세계시장 규모가 2012년 22억 달러에서 2021년 108억 달러로 고속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과 3D프린팅이 활용될 수 있는 전자·자동차·의료 등 산업기반을 갖췄지만, 고가 산업용 장비와 소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핵심 문제로 ▲걸약한 장비 인프라·활용 여건 ▲조기시장 및 관련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지원체계 부족 ▲선도국 대비 취약한 기술역량 ▲제도 미비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2020년 3D프린팅 국제적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세계적인 선도기업 5개 육성과 독자 기술력 확보를 통한 세계시장 점유율 15%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수요 연계형 성장기반 조성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기술경쟁력 확보 ▲법제도 개선 등 4대 전략 11대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세종=윤우?기자 bos@

권혁세 전 금감원장 강연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직무대행 김영배)는 24일 오전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을 연사로 초청해 '한국경제의 현안과 미래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제1,98회 경총포럼을 개최한다.

권혁세 전 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내수침체 지속에 따른 기업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향후 성장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응전략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김계희기자 kee@

꽃과 함께 봄의 정취 맛보세요 롯데몰 김포공항점은 '참신한, 봄의 정원'을 콘셉으로 박크사아, 헬리코니아, 시크라멘 등의 꽃들로 구성된, 형형색색의 꽃 정원을 마련했다. /롯데자산개발 제공

부동산대책 '두 달'…강남 재건축 직격탄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의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이 발표되고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26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1.95%를 기록했다. 이는 대책 발표 이전인 1~2월 2개월간 2.26% 상승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지난해 연말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 재건축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을 들어 매수세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매매가도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전·월세 과세 방침 발표에 따라 급격히 냉각됐다.

2·26대책이 나오고 3월 말까지 한 달간 1.58%가 하락했고, 4월 들어서도 22일 현재까지 0.33% 뒷걸음질쳤다. 이에 반해 강남권 일반 아파트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저가 매물이 소진되면서 4월 0.13%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2·26대책 전후 강남권 재건축 매매가 변동률 현황

구분	대책발표 전(1월~2월말)	대책발표 후(2월말~4월 현재)
매매가 변동률	2.?7%▲	1.95%▼
강남구	6.37%▲	1.58%▼
강동구	0.46%▲	0.44%▲
서초구	0.01%▼	2.42%▼
송파구	3.79%▲	2.87%▼

지난 2개월간 재건축 아파트 구별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송파구는 가락시영 재건축 결의 취소 판결 악재까지 겹쳐 2.87% 하락했다. 이어 서초구는 한신3차 등 전용면적 85㎡초과 대형 주택형이 많아 2.42% 내렸다.

강남구도 1만2000여 가구에 달하는 개포주공 및 시영도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2개월간 1.74% 빠졌다. 반면 고덕주공2단지, 둔촌주공 등 사업속도가 빠른 단지가 많은 강동구의 경우 0.44% 상승했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2·26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의 투자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매수세가 위축됐다"며 "정부는 오락가락이 아닌, 일관된 규제완화책으로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주택시장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기자 ...@

market index <23일>

코스피 2000.37 (-3.65)

코스닥 565.47 (-5.51)

금리 2.88 (변동없음)

환율 1039.50 (+1.20)

뉴스&뉴스

최성준 '재난방송 신중히'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23일 한국방송협회 회장단과 만나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일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내용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 현장, 구조 상황 취재·보도에 있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도와 피해자 관련 보도에 있어 사생활 보호 등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영기자 ...

국내 기부 GDP 0.9% 불과

● 국내 개인과 법인이 기부한 돈이 국내총생산(GDP)의 0.9%인 11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GDP의 약 0.9%에 해당하는데, 1.8%인 미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23일 통계청이 펴낸 '국내 나눔실태 2013'에 따르면 2012년 국세청에 신고된 개인과 법인의 기부총액은 11조8400억원으로 개인이 7조7300억원(65.3%), 법인이 4조1100억원(34.7%)이었다. 기부대상은 사회단체·기타기관, 종교기부금 등이다.

기부금 총액은 2006년 8조1400억원에서 2008년 9조900억원, 2010년 10조300억원, 2012년 11조84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2년 기부총액은 2006년 대비 약 1.5배로 늘어났다. /세종=유주영기자

연금복권520 제147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20년	5조	4 8 3 9 6 1
		1조	4 3 2 7 3 9
2등	1억원	1등의	앞뒤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3 7 4 1 0 2
4등	100만원	각조	4 4 3 6 4
5등	2만원	각조	2 9 2
6등	2000원	각조	3? 65
7등	1000원	각조	6 9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5·2
TEL 02)721-9800, FAX 02)739-1551
발행인·대표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71
2005년 6월 9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

해외 제약사 M&A '봇물'…국내사 훈풍될까

노바티스·GSK 빅딜, 밸리언트·앨러간 합병설
보톡스 수출 업체 메디톡스 수혜 기대감 커

해외 제약업종에 인수 합병(M&A)을 통한 구조재편 열풍이 불며 국내 제약업종의 주가에도 훈풍이 불어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들어 페이스북과 구글 등 미국 IT 및 기술주들 중심으로 불거진 M&A 열전이 제약업종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굵직굵직한 글로벌 제약회사의 주가는 일제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와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빅딜 소식에 노바티스 주가는 2.3% 올랐고 GSK의 주가는 5.2% 급등했다.

노바티스는 GSK의 암치료 의약품 사업부문을 160억 달러(16조600억원)에 인수하고 백신 사업부문은 GSK에 71억 달러(7조3800억원)에 매각하는 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GSK 아래 공작사를 세워 제약전업이 관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노바티스는 동물건강 사업부문은 다국적 제약사인 일라이릴리에 54억유로(7조7000억원)에 넘기기로 했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화이자가 제약업계 M&A 시상 최대 규모인 1000억 달러(104조원)를 인수가액으로 잠정 제시했다는 소식에 4.7% 강세를 보였다.

바이엘, 바스프 등 다른 제약주들은 일제히 3% 넘게 상승했다. 미국 앨러간은 헤지펀드 매니지먼 빌 애크먼과 캐나다 최대 제약사인 밸리언트가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15.3% 치솟았다. 밸리언트도 7.6% 급등했다.

밸리언트 등이 앨러간에 제시한 인수가액은 456억 달러(47조4000억원)로 앨러간의 최근 주가에 30% 프리미엄을 얹은 규모다.

글로벌 제약업종의 합종연횡이 본격화하는 속에서 국내 제약업종의 입지가 높아질지에 관심이 쏠렸다. 보톡스로 잘 알려진 앨러간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코스닥 상장사 메디톡스의 주가가 5.2% 오르며 이틀째 급등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9월 앨러간을 대상으로 국산 보톡스격인 메디톡신의 차세대 기술 수출계약 3898억원(405조3000만원)어치를 체결했다.

이승호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밸리언트가 앨러간을 인수하면 기존 계약이 밸리언트로 이전될 것"이라며 "또 존슨앤존슨도 보톡스 시장 진출을 포기하면서 메디톡스를 포함한 기존 업체들의 보톡스 시장에 대한 시장 지배력이 강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다른 제약주들은 전반적인 하락장 속에 약세를 보였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국내 제약업체들은 서로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하다보니 M&A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며 "향후 자체적인 사업부문이 성장하면 국내에도 M&A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정기자

우리은행 민영화 탄력받나

조특법 통과시 매각작업 속도 낼 듯

우리금융지주가 민영화작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의 개정안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금융당국이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 지 약 10개월만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계열사 지방은행 매각 작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모든 절차가 연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우리금융 계열사 분할을 적격 분할로 판단하고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경남·광주은행와 우리금융 분할기일을 기점으로 한 매각절차에도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다음 달 2일자로 우리금융지주·KNB금융지주·KJB금융지주로 분할된다. 3개 지주는 각각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을 합병한 후 은행의 전환을 거쳐 매각된다.

경남·광주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과 JB금융이 각각 결정된 상태다.

우리금융과 BS금융, JB금융 간 본계약이 체결되면 금융위원회에 각각의 지방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승인받고 오는 9~10월쯤 인수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 /우리은행 제공

/박아란기자

GS건설, 프로젝트 계약

GS건설(대표 임병용)은 이라크 석유부 산하 석유프로젝트공사(SCOP·State Company for Oil Project)가 발주한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수주 공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총 계약금액은 60억4000만 달러로 단일 플랜트 공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분 구조는 GS건설 37.5%,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37.5%, SK건설 25%로 이뤄졌다.

GS건설의 계약금액은 22억6500만 달러(약 2조3500억원)이다. /박선옥기자

두산중공업 트리마제에 들어설 카페테리아 이미지

아파트에 애견카페…'이색공간' 눈길

건설사 분양 'Good', 입주민 주거 질 'UP'

다른 아파트와는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찾는 수요자가 늘면서 이색공간을 갖춘 분양 단지가 속속 선보이고 있다. 건설사마다 업그레이드된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는가 하면, 입주민만 누릴 수 있는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리실, 미니 잔디 슬로프, 애견카페 등 차별화된 공간이 아파트 안으로 잇달아 들어서고 있다.

두산중공업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서 분양한 '트리마제'는 단지내 카페테리아를 제공한다. 이곳에는 45㎡ 이상 규모의 조리실을 설치해 호텔 출신 요리사가 조리한 유기농 식단의 조식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실내골프연습장, 저산식 사우나시설, 스파, 게스트하우스 등이 준비됐다.

GS건설은 다음달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강센트럴자이'에 미니 잔디 슬로프를 설치할 예정이다. 여름에는 조경시설로,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소형 캠핑데크를 시공해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삼성물산이 다음 달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서 선보일 '래미안 용산'은 40층 높이를 활용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각 동 5·20·21·40층에 옥상정원을 배치하고, 20~40층 내부 엘리베이터홀 옆 3개 층씩 동쪽에 대나무를 심은 독특한 실내테마정원을 설계해 빌딩숲 속 충분한 녹지공간을 갈보할 방침이다.

아이에스동서가 부산 남구 용호동에 분양중인 주상복합 아파트 '더 더블유(The W)'는 단지내 조깅트랙과 애견카페 등을 설치한다. 바다를 바라보며 700m 규모의 조깅트랙은 달릴 수 있도록 설계했고, 커뮤니티시설로 애견카페를 제공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입주민을 배려했다. /박선옥기자

"농식품기업 지원 앞장"

김주하 농협은행장(가운데)이 지원금을 설명하고 있다. /농협은행 제공

김주하 농협은행장이 농식품 기업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은행은 23일 김 행장이 농식품기업인 한산식품을 방문해 경영애로를 청취하고 농식품분야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행장은 "농식품기업에 대한 지원은 농협은행의 존립목적이자 정체성"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농협금융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농식품분야에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 농촌에 소재한 농산물 가공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특화된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농협은행은 농식품기업에 대한 특화된 지원책을 진행해 왔다. 특히 농식품기업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농식품기업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고, 신용대출한도·우대금리를 확대한 특화상품 '행복채움 농식품기업 성공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박아란기자

재규어·랜드로버, 공격적 마케팅

딜러망 확충·서비스센터, 서울·대구에 신설

재규어와 랜드로버가 올 한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

조주현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마케팅·홍보 담당 이사는 최근 경주 블루원 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중 서울 주요지역과 인천·경기도, 경상도에 딜러를 확충하고, 서울 성산과 대구 지역에 서비스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경기도 화성에 부품 공급센터를 설립해 부품 수급을 더욱 원활히 하겠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서울 성산동에 세워질 서비스센터는 3600㎡ 규모에 3층 건물로 세워지며 12개의 워크베이가 마련된다. 공식 오픈은 오는 6월 예정이다.

재규어와 랜드로버는 지난해에만 서울 한남과 경기 일산·분당, 원주 등 네 곳에 전시장을 추가했다. 현재 12곳의 전시장과 14개의 서비스 네트워크가 마련돼 있고 타 브랜드에 비하면 추가할 지역이 많이 남아 있다.

조주현 이사는 "한국은 세계 5위의 재규어 판매국이며, XJ가 네 번째로 많이 판매되는 나라"라며 "지난해 재규어 랜드로버는 중국에서 31% 포인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30% 포인트 성장하며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재규어는 이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2015년에 신 모델 'XE'를 공개할 예정이다. 2조6000억원의 막대한 금액이 투자된 이 신차는 BMW 3시리즈,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아우디 A4, 렉서스 IS 등과 경쟁하게 된다. 동급 최초의 알루미늄 차체가 적용되며 9000억원을 투자한 새 엔진이 탑재된다.

재규어 랜드로버 전체 라인업.

재규어와 랜드로버는 최근 국내 수입자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다. 지난 2008년에는 두 브랜드 합쳐서 1227대를 판매했는데, 2011년에 2600대를 돌파하면서 두 배 이상 급성장했다. 지난해에는 5004대를 판매했고, 올해는 6000대 돌파를 바라보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재규어는 561대, 랜드로버는 722대가 판매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재규어에서는 XF 2.2 디젤이, 랜드로버에서는 이보크 SD4가 가장 인기 모델이다.

/양성희기자 fenja@metroseoul.co.kr

"창의력만으로 취업 OK" SK텔레콤은 스펙에 대한 평가 없이 오직 창의력과 SNS만을 활용해 인턴사원을 선발하는 소셜미디어 시즌3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SK텔레콤 제공

구직자 눈높이 낮춘다

30%가 중소기업 선호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에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전국 20대 이상 구직자 25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30.2%가 중소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17.3% 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대기업 선호도(13.9%)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21.7%), 중견기업(18.6%), 외국계기업(8.5%)도 앞질렀다.

특히 지난 2년간 조사와도 차이가 크다. 2012년과 2013년 27.9%와 32.3%의 선호도로 연속 1위에 올랐던 공기업은 2위로 밀려났다. 21.3%와 16.9%의 선호도로 연속 2위를 지켰던 대기업은 중견기업에도 밀리며 4위로 추락했다.

이는 취업난으로 현실 직시한 구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20대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선호도가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다. 중소기업 선호자 중 20대가 62%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는 14.1%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생과 대졸자의 중소기업 선호도가 62%로 고졸 응답자(32.1%)보다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제국희기자 [illegible]

삼성·LG전자, 1분기 실적 '관심'

29일 발표…부문별 희비 엇갈릴 전망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1분기 실적을 29일 나란히 발표하는 가운데 사업부문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그동안 매 분기 끝난 다음달의 4주차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했으나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하면 투자자 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적 발표일을 '월말 무렵 주중'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분기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휴일이기 때문에 4월 30일이 아닌 29일로 실적 발표일이 정해졌다.

LG전자 역시 지난 1일 실적 발표일을 29일로 공시하면서 양사 1분기 실적발표 일정이 겹치게 됐다. 다만 실적 발표 시간은 삼성전자가 오전 9시30분, LG전자가 오후 4시다.

업계에선 양사 실적이 사업부문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1분기 잠정실적(가이던스)으로 매출액 53조원, 영업이익 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8일 공시한 바 있다.

부문별 영업이익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IT·모바일(IM) 6조원 안팎, 반도체를 포함한 부품(DS) 1조9000억~2조원, TV 등을 포함한 소비자가전(CE) 3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매출액은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등으로 세분해 발표되지만 영업이익은 3개 사업부문별로만 나온다.

LG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컨센서스)은 2600억~2700억원이다.

LG전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 사업부가 소폭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홈엔터테인먼트(HE)와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는 각각 16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영기자 [illegible]

라이나생명 실버암보험 80세 확대

라이나생명보험이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

가입 나이에 제한 또는 완수 기준을 완화해 실버암보험 상품을 다시 출시했다. 라이나생명은 2012년 7월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상품을 출시했었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노인성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 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 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 추가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면서 암 사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함께 개발했다. 단 이 특약의 가입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능하다.

/김민지기자 minji@

LGU+, '그랑서울' 통신 지원

LG유플러스는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건물인 '그랑서울'의 통신 인프라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그랑서울은 연면적 5만3100㎡에 오피스 2개동으로 구성된 강북의 랜드마크 건물이다.

LG유플러스는 이 건물에 10Gbps(초당 기가비트)급 속도를 지원하는 통신망을 구축하고 통신장비 집결시설인 국사와 건물 내 망 고환기를 연결하는 선로를 이중화해 장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첨단 기술을 총동원했다.

LG유플러스는 입주 기업에 인터넷TV 기업전화 인터넷을 결합한 '유플러스 비즈(U+ Biz)' 기업 유선 결합상품, 유무선 통합 모바일 IPT 복합기 임대 서비스, 에너지 관리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그랑서울'에 첨단 빌딩 통신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제공

또 건물 내 전문기술인력을 배치하고 사후관리와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U+ 통신실'을 운영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LG유플러스측은 "그랑서울이 첨단 빌딩 통신 인프라를 구축함에 따라 입주 기업은 통신서비스와 건물 유지 관리 비용을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승희기자 sah@24@

10대 그룹 사외이사는 '거수기'

5년간 찬성 99.7%…LG·GS·한진은 100%

10대 그룹 사외이사들이 최근 5년간 상정된 이사회 안건에 대해 99.7%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주주 전횡 및 견제 감시를 위한 사외이사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바네킹 거수기' 역할을 한 셈이다. 특히 100%의 찬성률을 보인 곳은 LG·GS·한진그룹 등 3곳이나 됐고, '묻어면 예' 찬성표를 던진 사외이사도 전체의 96%에 달했다.

23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5년간 10대 그룹 92개 상장 계열사의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1872명의 사외이사들이 4626건의 이사회에 참석해 3만7635표의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중 찬성표는 99.7%인 3만7538표였다.

100% 찬성표를 던진 사외이사만도 전체 1872명 중 1792명으로 95.7%에 달했다. 반대표는 5년을 통틀어 38표로 이사회에 참석한 사외이사 50명 중 한 명꼴에 불과했다.

사외이사 평균 찬성률이 가장 높은 그룹은 LG·GS·한진그룹으로 불참을 제외한 반대와 기권표가 단 하나도 없었다.

LG는 239명의 사외이사가 4527건의 안건에 대해 100% 찬성했다. GS와 한진 역시 149명과 97명의 사외이사들이 각각 1866건, 1677건의 안건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삼성과 한화, 롯데는 99.9%로 2위권을 형성했다. 삼성은 355명의 사외이사 중 반대표를 던진 경우는 없었지만, 기타로 분류된 의결권이 6건 있었고, 롯데는 171명의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 5173건 중 6건의 반대표를 던졌다. 한화는 사외이사가 138명이었고, 3845건의 안건에서 반대와 기권이 각각 1표, 2표 있었다.

이어 현대자동차가 4465건 중 반대 5표, 기타 7표로 99.7%, 현대중공업이 845건 중 기권과 기타 각각 2표씩으로 99.5%의 찬성률을 보였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사외이사는 217명과 64명이었다.

포스코는 113명의 사외이사가 반대 11표, 기권 1표, 기타 4표 등 찬성이 아닌 16건의 의결권을 행사해 찬성률이 99.4%였다.

SK는 99.2%로 찬성률이 가장 낮았다. 338명의 사외이사가 6346건의 안건 중 6298표의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15개였고 기권과 기타가 35개였다.

박주근 대표는 "사외이사들이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는커녕 예스맨 병풍막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라며 "사외이사 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ksa1@metroseoul.co.kr

中企 글로벌진출 지원 한마당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중기 글로벌 시장 진출 한마당'을 개최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제공

로봇청소기 품질 불만 크다

편리성에 비해 소음·흡입력 미흡 지적

최근 편리성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로봇청소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로봇청소기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성에 비해 소음이나 흡입력 미흡 등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로봇청소기에 대한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는 446건이었다. 로봇청소기 제품의 판매가 늘면서 불만도 매년 증가해 2010년 72건이던 것이 2011년 97건, 2012년 113건, 2013년 164건으로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한 164건 중 유형별 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음과 흡입력 미흡 등 품질 불만이 절반이상인 50.6%에 달했다. 사후관리 서비스(32.9%), 계약해제(8.5%), 부당행위(4.3%)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측은 로봇청소기를 구입할 때 ▲국산제품은 바닥청소에 특화돼 있고 일부 수입제품은 카펫청소 및 애완동물의 털, 머리카락 등에 특화돼 있고 ▲로봇청소기의 배터리는 니켈수소, 리튬이온 등 다양하며 그 종류에 따라 수명(용량), 안정성, 가격, 무게감 등이 다르고 ▲자율이동, 자동충전, 무선조정, 청소예약·음성안내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제품별 부가 기능도 꼼꼼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로봇청소기를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는 소비자 톡톡 품목으로 선정하고 1년 동안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에서 소비자 평가를 하기로 했다.

/김정훈기자 jung@

부영, 미얀마에 '태권도 훈련센터'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사진)은 지난 22일 미얀마 경제중심지인 양곤시에 위치한 투운나 종합경기장 내 태권도 국가대표 훈련센터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부영그룹 장명관 고문을 비롯해 유 틴트 산 미얀마 체육부 장관, 유 퀸스 웨 양곤 주지사, 유 드에 한 미얀마 태권도 협회장, 이백순 미얀마 한국대사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한류 태권도'의 출발을 지켜봤다.

부영그룹이 총사업비 40만 달러를 지원한 미얀마 태권도 국가대표 훈련센터는 연면적 1730㎡,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건립되나 미얀마 대한노협회 체력 단련실과 훈련장 및 관람석을 갖춘 경기장 등 총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선수 기숙사가 지어진다.

/박선옥기자 psy@

UHD TV 가격 '뚝'…판매 활기 띨까

삼성·LG전자 200만~300만원대…G마켓 99만원 제품 출시

초고화질(UHD) TV가 올해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붐을 안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LG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가전사들과 중소기업 가전사들이 잇따라 UHD TV를 출시하며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특히 중국발 UHD TV 영향으로 연내 가격마저 낮아지며 대기업 가전사 제품이 이번 200만원대 제품까지 출시됐다.

LG전자는 지난달 31일부터 예약판매를 통해 49인치 UHD TV 'UB8500'을 299만원에 판매했다. 55인치 UB8500은 390만원, 65인치 UB9800은 740만원에 내놨다.

이들 예약판매 제품의 배송은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LG전자는 한국 가정 주거 형태가 30평형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 보급형 제품인 49인치 UHD TV를 예약판매 제품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65인치의 대화면과 프리미엄 사운드를 갖춘 제품도 포함시켜 고객 선택폭을 넓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UHD TV 예약판매를 통해 55인치와 65인치 UHD TV 2종, 커브드 UHD TV 2종을 출시했다. 삼성전자의 커브드 UHD TV는 55인치 제품이 590만원, 65인치 제품이 790만원이다.

삼성전자는 이들 고급형 커브드 UHD TV와 함께 조만간 보급형 50인치 UHD TV를 300만원대에 출시하며 프리미엄 제품과 보급형 제품의 투트랙 전략으로 UHD TV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가전사는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UHD TV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G마켓은 22일 자정부터 열리는 슈퍼딜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최초의 UHD TV '스마트라 UHD-500A'를 99만원에 100대 한정 판매했다. 스마트라 UHD-500A는 스마트홈일렉트로닉스에서 중소기업으로는 국내 최초로 출시한 UHD TV다. 50형 제품인 이 UHD TV는 한정 판매 이후에도 100만원대 초반 가격으로 상시 판매될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ljy@

크림을 '러시아의 라스베이거스'로

푸틴 '게임 구역' 지정 의회 요청… 정부 보조금 낮추기 포석

글로벌 이코노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 반도를 카지노 왕국으로 만들겠다고 나섰다. 크림을 병합한 뒤 끌어안아야 할 경제적 부담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푸틴 대통령은 크림 반도 내 '게임 구역' 지정을 의회에 요청했다. 카지노 업소들의 합법적 영업을 바탕, 크림 반도의 러시아 정부에 대한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크림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15억 달러(약 1조5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부터 방치돼 30년이나 낙후된 크림의 교육 체계와 공공 의료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각각 7억 루블(약 203억 원)과 55억 루블(약 16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 러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카지노 설립이 허가된 곳은 4곳이다. 모두 러시아 국경 지대에 있다. 러시아 안에서 합법적으로 카지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크림에서 북동쪽으로 200마일 정도 떨어진 아조프시가 유일하다.

앞서 지난 2009년 푸틴 대통령은 도박의 중독성 에서 러시아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모스크바 내 카지노 설립을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크림 적자"가 우려되자 '카드(황제)' 푸틴은 안면을 싹 바꿨다.

러시아의 흑해함대가 주둔해 있는 크림반도는 군사 전략적 요충지인 동시에 많은 러시아인이 첫 손에 꼽는 휴양지다. 러시아 인들은 온화한 기후에서 바다 수영을 즐기기 위해 여름 휴가철 크림을 자주 찾는다. 푸틴은 천혜의 휴양지인 크림을 '러시아의 라스베이거스'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크림에서 카지노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정부와 시위대 간 충돌이 끊이지 않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 크림에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도박사'를 찾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크림 반도까지 도박을 하러 가는 러시아인이 늘어날지도 미지수다. 특히 엄청난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찾는 러시아의 '큰 손'들은 소박한 휴양 도시 크림 보다 런던이나 모나코의 화려한 '카지노 천국'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BBC

연준 임기 중 가장 후회되는 건…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22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의 경제클럽에서 연설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이날 버냉키 전 의장은 8년 간의 의장 임기 중 가장 후회로 남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의회 청문회'을 말한 것 이라고 답해 좌중을 폭소케 했다. /AP 연합뉴스

美 중산층 소득 세계 1위 아냐

빈부격차 심화 살림살이 '팍팍'… 캐나다 등에 추월

한 때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미국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

2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의 최상위 부유층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소득이 월등히 높지만 중·하위층의 소득은 훨씬 적다. NYT는 '룩셈부르크 소득연구소(LIS)'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로렌스 카츠 하버드대학 경제학교수는 "미국의 중산층이 다른 나라 중산층보다 부유하다는 통념이 깨졌다"면서 "1960년대는 물론 1990년대까지도 미국의 중산층 소득이 어느 나라보다 많았지만 이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캐나다 중산층은 2000년만 해도 세후 소득이 미국보다 낮았지만 지금은 추월한 상태다. 또 유럽 대부분 국가의 하위층은 미국 하위층보다 소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NYT는 미국 중·하위층 소득이 뒤처진 이유로 빈부격차의 심화를 꼽았다. 2010년 기준 미국의 1인당 중간소득은 1만 8700 달러(약 1943만원)로 1980년 이후 20%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2000년 이후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는 셈이다.

/조선미기자

"따라쟁이?" vs "너 이거 돼?"

삼성-애플 광고전 장군 멍군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전쟁이 광고전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애플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미국·영국 등의 주요 일간지에 "우리는 모든 회사가 이런 아이디어를 베끼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이 달린 전면광고를 냈다.

이 광고에서 애플은 "우리가 다른 업체들에게 우리를 모방하라고 실제로 권유하는 분야가 하나 있다"며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득을 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애플은 또 이 회사의 모든 데이터 센터가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가동되며 제품에서 독성물질을 제거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애플이 광고를 통해 삼성전자를 에둘러 조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삼성은 이달 초 갤럭시 프로와 애플의 아이패드 에어를 비교하는 동영상 광고 4편으로 애플을 공격한 바 있다. 이 광고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남자가 "내 아이는 내가 한 작업을 지우는데 천재적이네요"라고 말하자 옆에서 갤럭시탭 프로를 사용하는 남자는 "왜 별도 계정을 만들지 않았나요"라고 반문한다. 이는 갤럭시의 '멀티 유저' 기능을 강조하며 아이패드를 디스 한 셈이다.

삼성은 지난 2월 갤럭시노트3와 아이폰의 화면 크기 기능을 비교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에서도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덩크슛하는 장면을 동시에 재생해 5.7인치 HD 스크린과 4인치 디스플레이의 차이를 확연히 보여줬다.

◆반소청구 71만 달러 감액

한편 미국 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등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의 변론 종결일이 오는 28일(현지시간)로 정해졌다.

삼성전자는 이날 애플을 상대로 한 반소청구 중 애플 아이패드에 관한 부분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재판의 반소 청구액도 기존 694만 달러(약 72억 원)에서 623만 달러(약 64억 6000만원)로 줄었다. 이는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제품으로 지목한 애플 제품 중 아이패드2·3·4·미니를 빼기로 했기 때문이다.

애플이 삼성전자에 요구한 2차 배상 금액은 21억 9000만 달러(약 2조 2700억 원)이다. /한국일기자 km@

애플광고

삼성전자 광고

스마트폰·태블릿 있으면 어디든 사무실

월 20만원 내고 도심 곳곳 오피스 이용
첨단 모바일환경 카페 분위기도 장점

기업 대상 컨설팅을 하는 곤정주(31)씨는 정해진 출근지가 없다. 시간과 상황에 따라 가장 편한 사무실로 출근하면 그만이다.

하루는 서울 강남역 인근으로 또 다른 날은 신논현역, 선릉역 부근으로 출근한다. 물론 지켜야 할 출퇴근 시간도 없다. 이른바 '노마드 오피스족'이다.

문 씨처럼 사무실을 자유롭게 갈아타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고속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복합기 등 유목민처럼 떠돌며 일을 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잘 구축돼 있는 까닭이다.

특히 월 단위로 계약할 수 있는 빌트인 오피스, 비즈니스 센터가 도심에 속속 들어서면서 노마드 오피스족을 대거 양산하는 중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1인 창업, 스타트업 오픈 등이 늘면서 비즈니스 센터 업계가 호황을 맞고 있다.

월 30만원부터 사무실을 얻을 수 있는 데다 초고속 인터넷, 냉·난방, 복사·팩스, 커피·음자 정기 휴게실 등의 인프라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히든 비즈니스 센터의 영업점이 있다는 점을 활용한 '오피스 카페'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매월 일정액을 내면 강남이나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해당 센터의 카페에서 일을 볼 수 있다.

비즈니스 센터를 대표하는 브랜드 '더좋은 비즈스퀘어'를 이로 들면 이 업체는 강남대로점(강남역), 선정릉점(선정역, 선릉역), 신논현점(논현역, 신논현역), 역삼역점(역삼역) 총 4곳을 운영 중이다.

고객이 네 곳 중 한곳에 월 20만원을 내면 예판 점포의 카페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노트북이나 태블릿PC만 있으면 문서 출력에서 개인우편물 발송·수취, 귀중품 보관까지 다양한 편의를 누릴 수 있다.

카페인 판증 커피나 음자 등의 자는 무료이며 탁 트인 곳에서 공짜로 제공되는 신문을 보며 편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역삼역점에서 만난 1인 PR기업 창업자는 "고정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데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이곳 주소로 할 수 있어 편하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미팅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때그때 가까운 영업점의 카페에서 일을 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zoo@metroseoul.co.kr

노마드 오피스족이 도심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의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다. /더좋은비즈스퀘어 제공

MS, 마산공장 인수 제외 23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수 대상에서 제외한 노키아 한국공장 법인인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노키아티엠씨. 임시 휴무에 들어간 23일 직원들이 출근했지만 조건을 걱지 않아 고용 불안에 휩싸였다. /연합뉴스

윈도XP 걷어내자

아크로니스·구글 등 캠페인 눈길

윈도XP 사용자들을 구하라.

최근 IT업계에 내려진 특명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원을 종료했지만 기존 윈도XP 사용자의 27%가 아직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백인천(준)연계아크로니스코리아는 윈도XP에서 윈도7·8 등 상위 버전의 OS로 시스템 및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전하는 '윈도XP 마이그레이션 캠페인'을 올 하반기까지 진행한다. 시스템 마이그레이션과 백업 방법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교육 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아크로니스 백업 앤 리커버리 11.5 포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하면 평균 4시간 이상 소요되는 백업을 30분~1시간 내 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어번 기회에 윈도 시리즈의 종속에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하다.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정말 바꿔야 할 때(It's Time for Real Change)'라는 문구를 내걸고 크롬 OS를 탑재한 노트북 '크롬북'을 100달러(약 10만3000원) 이상 인하해 판매하는 캠페인을 6월 말까지 진행한다. 특히 기존 윈도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쉬운 VM웨어의 'DaaS 접작 버전'을 선택하면 최대 200달러(약 20만6000원)까지 저렴하다. 크롬북은 소프트웨어를 저장매체에 직접 설치할 필요가 없는 클라우드 기반 OS(운영체제)를 사용한다. 구글 웹스가 제공하는 기업용 웹기반 오피스, 메일, 포털, 통합커뮤니케이션(UC) 제품 등을 인터넷 상에서 한꺼번에 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 MS는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불유예 프로그램'을 올 상반기까지 진행한다. 이를 활용하면 윈도XP를 대체할 상위 버전의 OS를 바로 납품 받고 실제 지불은 연말 또는 내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에버노트와 포스트 잇의 동거

IT도 인문학이다 /박선옥기자 zoo@

1990년대 후반 하나로통신과 KT는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다.

TV만 켜면 이들 회사의 광고가 나왔고 저녁 무렵 귀가할 때면 항상 대문에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권하는 전단지가 붙어있었다.

때마침 다음 카페, 세이클럽, 프리첼 등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유저가 급증하면서 집집마다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했다.

그런데 얼마 뒤 곳곳에서 "죽겠다"는 소리가 나왔다. 동네 꽃집, 골목 슈퍼, 서점 등 흔히 볼 수 있는 가게의 매출이 뚝 떨어진 것이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대형 할인 마트, 온라인서점으로 주문이 몰린 까닭이다.

2014년 4월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LTE 상품을 놓고 격전을 치르는 중이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TV는 이들 회사의 광고로 도배가 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대부분은 번호이동을 안내하는 것들이다.

LTE 가입자 수가 3000만명을 넘어서자 "더 죽겠다"는 고함이 터져나온다. 골목상권은 기본이고 증권, 은행, 카드와 같은 금융 거래는 물론 방송, 신문, 출판 심지어 회계 서비스까지 모바일에 의지하고 있다.

사람이 하던 일을 보이지 않는 기계가 대신하면서 매출이 급락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마저 급속도로 줄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편하자고 만든 문명의 이기가 우리를 잡아먹는 꼴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킬러 앱 중 하나인 에버노트의 행보를 보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파괴가 아닌 조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첨단 IT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행복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에버노트는 다국적기업 3M과 손잡고 이 회사의 히트작 '포스트 잇'을 대상으로 독특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포스트 잇을 사면 에버노트 프리미엄 이용권을 얻을 수 있다.

에버노트는 기본적으로 무료 메모 서비스지만 유료 버전인 프리미엄을 선택하면 저장공간 확대, 명함 인식 기능, 손글씨 디지털 전환과 같은 고급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필 리빈 에버노트 창업자 겸 CEO가 직원 회의를 주재했는데 직원 전원이 연필과 메모지를 들고 나타났다. 리빈은 "메모 앱 만든 회사 직원들이 종이와 연필을 쓰다니. '레마 잠깐동안 허탈해했지만 전재들에게만 떨어진다'는 뇌리를 스치는 번개를 맞은 뒤 "습관을 바꿀 수 없다면 같이 가보자"고 결정을 했다.

현재 포스트 잇과 에버노트는 '다함께 자자자'를 염창하며 순항하고 있다.

극장주들은 모바일과 인터넷 덧에 불법 다운로드가 점점 적자를 보고 있다며 한탄한다. 바꿀 수 없다면 같이 가는 건 어떨까.

극장과 동시에 심영할 수 있는 전용 앱이나 사이트를 만들고 가격 또한 저렴하게 책정한다면 영화 제작 뒷이야기나 주연 배우 인터뷰 등을 보너스로 끼워준다면 오히려 관람객을 대폭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직장인 피로도 심상찮다

80%가 주 2~3일 이상 피곤함 호소

근무 일수의 절반 이상 피곤함을 느끼는 직장인이 10명 중 8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엘 코리아 컨슈머케어는 최근 취업 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와 함께 20세 이상 남녀 직장인 2343명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및 피로 대처 능력'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현재 직장인들의 피로도는 최고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에서 피로도를 느끼는 빈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6.7%가 '주 2~3회'라고 답했으며 '매일'이라고 답한 직장인도 36.6%를 차지했다. 즉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근무 일수의 절반 이상을 피곤함을 느끼며 일하고 있는 것이다.

피로를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만성 피로'(32.3%)였으며 '회사 내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체력 저하'가 22.5%의 동일한 비율로 그 뒤를 이었다.

사무실에서 가장 피곤한 시간대는 오후 2~4시 사이(37.0%)였다. 이 시간 피곤함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는 ▲커피나 에너지 음료 등 카페인을 수시로 섭취한다(35.5%)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산책 등 사무실 바깥 공기를 마신다(33.7%)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직장인의 39.4%가 건강을 위해 사무실에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비타민'(68.4%) 섭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중 64.4%가 발포 비타민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직장인들은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실제 업무 능력(24.9%) ▲근면 성실한 태도(21.7%) ▲인맥(16.4%) ▲체력과 건강(15.5%)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황재용기자 hwaj38@metroseoul.co.kr

여성 대부분 본인 눈 불만족

여성의 94.9%가 '자연스럽게 빛나는 눈을 가지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원데이 아큐브 디파인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명동에 위치한 아이디파인 스튜디오를 찾은 13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결과 130명(94.9%)이 이 같은 희망을 나타냈다고 22일 밝혔다.

응답자 중 110명(80.3%)은 "현재 자신의 눈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홍채에 대해서는 77명(56.2%)이 관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양인의 홍채는 서양인의 것과 비교해 굴곡이 약하고 색상 배열이 단조로워 상대적으로 눈의 깊이가 얕아 보이고 반짝임이 부족해 보인다고 업계 측은 전했다. 눈의 깊이를 보완해주는 뷰티렌즈가 유독 동양에서 인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 브랜드 제품은 국내 최초 홍채 디자인의 서클렌즈로 설문조사 응답자 중 100명(73%)이 이 렌즈를 착용한 후 "자연스럽게 빛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답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엔지 보워스 아큐브 디파인 수석 디자이너는 "자연스럽게 빛나는 눈빛을 원한다면 이제 홍채에 주목할 때"라며 "홍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아큐브 디파인은 빛나는 눈빛을 원하는 많은 여성들의 바람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kimc1604@

'활명수' 브랜드 홈페이지 오픈

동화약품, 갤러리 형식으로 정보 제공

동화약품(회장 윤도준)이 자사의 소화제 '활명수' 브랜드 홈페이지(사진)를 공식 오픈했다.

홈페이지는 활명수 탄생 117주년을 기념해 활명수의 역사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홈페이지는 활명수에 대한 정보를 갤러리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활명수 역사 ▲브랜드 이야기 ▲고객의 소리 등 총 6개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활명수는 궁중선전관 민병호 선생이 1897년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양약으로 급체·토사곽란 등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았던 시절에 활명수(活命水)라는 이름 뜻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물'로 불리기도 했다.

/황재용기자

유방암 환우에게 희망을 한국로슈(대표 마이크 크라리턴)가 최근 서울 부암동 서울미술관에서 '힐링 갤러리 시즌 4: 가족과 함께 하는 유방암 환우 힐링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유방암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힐링 토크쇼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한국로슈 제공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개원 1주년 행사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한림대동탄성심병원(원장 장호근)이 개원 1주년을 맞아 환자와 보호자, 지역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다음달 24일까지 '자궁경부암 예방주간' 예방접종 행사가 진행되고 5월 7일부터 31일까지는 '봄맞이 미용 성형' 이벤트가 이어진다.

또 병원은 오는 25일까지 '무료 검진 행사'를 마련해 지역주민과 환자, 보호자에게 혈압·혈당 검사, 체성분 측정, 흉부 X-선 검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월에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가 개최된다. 2일에는 어린이날 기념품 증정,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소아병동 놀이방 활동을 이어가며 어린이 그림 전시회가 열리며 20일에는 '부모님 건강을 위한 영양관리'를 주제로 건강강좌가 개최된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1000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지난해 5월 16일 개원했다. /황재용기자 hwaj38@

류마티스학회, '류마티스학 교과서' 발간

각종 질환과 관련된 정보 수록… 808쪽

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유대현)가 류마티스 질환 이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한글판 '류마티스학 교과서'를 발간했다.

학회 자원에서 처음으로 발간되는 한글판 교과서로 ▲류마티스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등 각 분야의 저명한 의료진 100명이 공동 저자로 집필에 참여했다.

교과서는 총 22부 808쪽 분량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관절염 ▲근관절염 ▲류마티스 질환의 수술적 치료 등 류마티스 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

한편 학회는 지난 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출판 소식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황재용기자

편의점 'PB 팝콘' 새우깡 추월 눈앞

PB(독자개발 브랜드 상품) 팝콘이 편의점 스낵 시장에서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다.

23일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자사의 'PB 제다지즈 팝콘'은 4월 들어 전년 동기 대비 165.7%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스낵 판매 순위 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절대 강자인 1위 상품 '새우깡'의 매출 추월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만 해도 29.71였던 PB 제다지즈팝콘(사진)과 새우깡의 매출 지수 차이는 1년 사이에 45.51까지 좁혀졌다.

두 상품이 전체 스낵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새우깡이 3.8%, PB 제다지즈팝콘이 3.6%로 불과 0.2% 포인트 차이에 불과해 상반기 내 순위가 역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세븐일레븐 측은 전망했다.

회사 측은 PB 팝콘이 인기를 끄는 이유로 극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어 필수 아이템인 팝콘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팝콘 표면이 코팅처리 되어 있는 기존 NB 상품과는 달리 PB 팝콘은 팝콘 본연의 부드러움과 맛을 살려 극장에서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품질을 자랑하고 양이 많은데도 가격은 1000원으로 NB 상품 대비 33.3%에서 최대 50% 저렴한 점이 인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PB 팝콘의 선전과 함께 스낵 과자류 내에서의 PB 상품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세븐일레븐의 지난해 PB 스낵 매출은 전년 대비 38.7% 증가했고, 올해도 21.4%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스낵 매출에서 PB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도엔 12.8%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20%에 육박(19.6%)하고 있다.

/정현일기자

진품 여부 논란, 주류 시장으로 확대

최근 해외직접 구매와 병행수입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방안이 다오는 가운데 짝퉁 명품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명품 브랜드들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품 보증서를 발급하는가 하면 정품이 아닐 경우에는 2배로 보상하는 제도까지 실시하며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특히 주류 시장은 진품 여부 논란이 가장 뜨거운 곳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위스키에 RFID(무선주파수인식기술) 태그 부착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불법 주류 거래와 가짜 양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판매가 급증한 보드카, 데킬라, 진, 리큐르 등 화이트 스피릿에는 RFID 의무 부착을 제도화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진짜 데킬라 멕시코 정부 연증 'NOM 넘버'로

/아영FBC 제공

RFID가 부착되지 않은 화이트 스피릿 중에는 데킬라가 유일하게 놈(NOM) 넘버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데킬라 라벨에 표기된 놈(NOM(Normas Official Mexicana)넘버는 멕시코시티 서북지역에서 생산된 정통 데킬라를 인증하는 번호를 말한다. 또 이 번호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데킬라의 주요 원료인 아가베(Agave)를 51%이상 함유해야 하기 때문에 멕시코 정부의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거친다.

국내에 들어오는 데킬라 중에는 데킬라 생산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생산이 되거나 아가베 함유량이 낮고 데킬라의 향만 첨가된 리큐르가 '데킬라'라는 이름으로 일부 유통되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동일한 가격을 내고도 '짝퉁 데킬라'를 마시는 것이다.

주류 전문기업 아영FBC 관계자는 "가짜 데킬라는 정통 데킬라의 달콤하고 씁쓸한 맛과 향을 제대로 지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정성까지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NOM 넘버를 확인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며 "NOM 넘버 확인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데킬라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일기자 ...@metroseoul.co.kr

23일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 책의 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인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을 찾은 한 시민이 책을 읽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야외활동 적합하게 리뉴얼 제품 잇따라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야외활동을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다. 최근 유통업계는 기존 제품에서 성능은 물론 디자인까지 야외활동에 적합하게 업그레이드한 리뉴얼 제품들을 연이어 선보이며 나들이족을 맞이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최근 야외활동 시 한 손에 들고 다니기 편리도록 패키지 디자인을 변경한 석수 리뉴얼 제품을 출시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해 휴대성을 높이고 건강하고 깨끗한 물의 이미지를 담은 새로운 패키지 디자인을 적용했다.

아식스 코리아는 화려해진 색상과 업그레이드 된 착화감으로 자유로운 야외활동을 도와 줄 워킹화 G1을 새롭게 선보였다. 다양한 컬러의 색상과 디자인으로 어떤 패션에나 쉽게 어울리며 스타일링 포인트 아이템으로도 제격이다.

시세이도는 자외선 차단 효과는 물론 간편한 클렌징으로 야외활동에 적합한 '아넷사 퍼펙트 에센스 선스크린 A+N (SPF50+ PA+++)'을 리뉴얼 출시했다.

/김희정기자

강강술래, 정육쇼핑몰 업계 최초 '당일배송' 실시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특송택배 전문업체 사은컴퍼니와 손잡고 당일배송 서비스에 나선다.

온라인 쇼핑몰(www.sullaima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평일 오후 2시 이전에 양념육이나 가공식품(곰탕·육포·떡갈비 등)을 당일배송 서비스로 신청하면 그날 오후 9시 이전에 제품을 배송해준다. 단 서울 지역만 가능하다.

서비스 실시 기념으로 5월 2일까지 당일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고객 부담금(1900원)을 받지 않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4월 30일, 5월 1일 제외).

또 이달 30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쇼핑몰 '스피드 당일 결송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오후 4시 추첨을 통해 당첨자 1명을 선정해 '한우불고기 선물세트(1kg)'를 9시까지 당일 배송한다(주말 제외, 결품 수령지 서울에 한함).

이달 말까지 쇼핑몰과 전화주문 전 매장을 통해선 야외 나들이나 캠핑 등에서 즐길 수 있는 가정간편식 30%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국내산 돼지등심 부위를 통째로 넣은 통등심돈가스(720g×3박스)는 3만1500원, 자연치즈를 사용한 꼬치(?)돈가스(720g×3박스)는 3만7800원에 할인 판매한다.

국산 돼지고기 70%에 흑임자를 접목한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3박스) 2만5200원과 100% 한우 갈빗살로 만든 '직화한우떡갈비'(360g×3박스, 4만2000원), 갈비맛 쇠고기육포(50g×6봉, 2만5800원)도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ml 5팩·15인분)는 3만9800원, 소용량 세트(350ml 5팩·10인분)는 2만2500원에 살 수 있다. /정혜인기자

의류업계, '헤리티지 마케팅' 눈길

브랜드의 역사·가치 알려 고객 호감도 높이기

브랜드의 가치와 역사를 알리는 헤리티지 마케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브랜드 초창기의 대표 제품을 재해석해 한정판으로 출시하거나 브랜드에 영감을 미친 인물과 관련된 마케팅을 펼치는 등 방법은 다양하다. 헤리티지 마케팅은 한 브랜드가 오랜 역사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고 이는 곧 브랜드 가치와 고객 신뢰도를 높이는 데 유용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밀레(대표 한철호)는 최근 자사 브랜드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산악인들의 이름을 딴 제품을 레트로 시리즈로 출시했다.

밀레는 1921년 프랑스 사보니 지역에서 밀레 부부가 열 명 남짓의 직원들과 함께 등산용 배낭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 브랜드 시초다. 그 당시 기술 고문 역할을 했던 모리스 에르조그, 루이 라쉬날, 르네 드메종과 같은 전설적인 산악인들의 이름을 딴 헤리티지 디자인 제품을 이 브랜드는 최근 선보였다.

그 중 자체 개발 소재인 드라이엣지를 사용한 방수·방풍 기능이 있는 라쉬날 3L 재킷과 체온 유지를 돕는 에르조그 LT 재킷은 레트로 시리즈를 대표하는 제품이다.

스웨덴 아웃도어 브랜드 피엘라벤은 브랜드 창시자인 아케 노르딘이 1960년대 그린란드 원정을 위해 개발한 소재 G-1000을 사용한 재킷의 디자인을 계승해낸 그린란드 재킷을 출시했다. G-1000 소재는 무거웠던 텐트 패브릭을 개선하기 위해 노르딘이 직접 개발한 소재로 재킷을 만들어 입은 것이 시초다. 이번에 출시된 재킷은 G-1000 소재의 최신 모델이자 재생 폴리에스터와 유기면을 사용해 친환경적이면서도 내구성이 우수한 G-1000 ECO를 사용했다고 업계 측은 전했다.

11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캠핑 브랜드 콜맨은 브랜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랜턴 모델 넘버 200의 패키지 디자인을 카우보이 테마로 새롭게 선보인 시즌 랜턴 2014를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농촌에서 '어둠의 태양'이라 불리며 소중히 다뤄진 콜맨의 랜턴은 지금도 브랜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다.

잔스포츠는 브랜드 창립자 스킵 요웰의 자서전이 국내에 출간되는 것을 기념해 지난 20일까지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잔스포츠의 다양한 제품들과 함께 브랜드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을 전시해 이색 마케팅을 펼쳤다. 히피 출신의 사업가라는 독특한 이력을 자랑하는 스킵 요웰은 잔스포츠의 성공요소 4가지로 히피의 순수함, 철저한 품질 검증,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자세, 자속적인 사회 환원을 꼽은 바 있다.

박용학 밀레 마케팅본부 상무는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알리는 것은 해당사에 대한 고객들의 호감과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신흥 브랜드와의 차별점을 부각시키는 좋은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다"며 "제품의 겉모양과 기술은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지만 브랜드가 지닌 유구한 시간과 그 시간 동안 고객들과 쌓은 유대까지 흉내낼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숙희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이지웨어, '슬리브리스'로 편하게

활용 높고 실효성도 갖춰

부담없이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지웨어'는 여성들에게 꾸준히 관심 받는 아이템 중 하나다. 그 중에서도 슬리브리스는 활용도가 높아 다양한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다.

가볍고 시원한 느낌의 롱 슬리브리스 원피스는 심플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여성들에게 주목받는 아이템이다.

특히 원피스는 다양한 아이템과 함께 레이어드할 수 있어 실용성이 좋고 멋스러운 재킷을 함께 입으면 쉽고 빠르게 이지웨어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다. 더운 날씨에는 롱 슬리브리스 하나만 입어도 여성스러우면서 세련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플라워 패턴이 더해진 슬리브리스 여어템은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좋다. 착용감이 좋은 쉬폰 소재에 제품에 톤다운된 컬러가 가미된다면 감각적인 스타일을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스커트나 하이웨이스트 팬츠, 스키니진 등의 하의와 함께 입어도 이지웨어의 활용도를 살리면서 다양한 분위기를 뽐낼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김학철기자

싱싱한 햇순·봄나물 판매 이마트는 오는 30일까지 봄을 맞아 새로 돋아난 두릅, 엄나무순, 참죽순 등 각종 햇순과 곰취, 어수리나물 등 다양한 봄나물을 산지 직송으로 바로 들여와 판매한다. 참두릅, 엄나무순, 오가피순, 참죽순 등 햇순은 4540원~4850원(150g)이고, 곰취, 어수리나물·명이나물은 4980원~6980원(300g)이다.

/이마트 제공

하프클럽, 5월 맞아 선물 기획전

패션 온라인몰 '하프클럽'은 지난 3월 패밀리 사이트인 오가게의 아웃도어 전문몰 아웃도어스와 통합해 더 커진 하프 클럽을 새롭게 선보였다. 5월 감사의 달을 맞아 선물 추천 기획전을 오는 27일까지, 선물 증정 이벤트는 25일까지 연다.

선물 추천 기획전은 테마 별로 알뜰한 선물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획됐다.

어버이날 선물로 쉬즈 미즈, 크로커다일 레이디, 인디안 등 유명 브랜드 의류 상품을 1만원 대부터 구입할 수 있는 브랜드 기획전이 마련돼 있다.

성년의 날 선물로 오휘 등 백화점 인기 화장품을 20% 추가 할인된 가격으로 제안하며 어린이날 선물 굳일가 파크전 또한 마련돼 있다고 업계 측은 전했다.

이와 함께 선물 추천 100% 당첨 이벤트 '열려라 땡큐 선물'을 진행한다. 하프클럽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한 아이디로 최대 50번까지 응모할 수 있다.

경품 선물로는 주제별 인기 검색어에 따라 마크제이콘스 가방, 알톤 자전거, 이니스프리 썬크림, 코베아 텐트 등이 제공된다. /김학철기자

뷰티업계, 베스트셀러 대용량 출시 늘어

브랜드, 충성도 높이기

최근 뷰티업계에서는 베스트셀러 제품의 대용량 출시가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가 정품 두 개를 구매하게 하는 것이 브랜드에게 더 이익이지만 오히려 용량 대비 가격을 조금 더 낮춘 대용량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양지은 베리떼 BM팀장은 "대용량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청이 많아진 데다 검증된 스타 상품을 대용량으로 제공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다른 제품과 동반 구매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화장품을 피부에 충분히 도포해 효과를 높이거나 소량을 자주 사용해 피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식으로 화장품 사용 방법이 변화하고 있어 대용량 제품을 원하는 고객의 요구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베리떼 '딥 클렌징 워터'(사진)의 경우 기존 150㎖는 1만5000원, 300㎖는 2만원으로 대용량을 구입하면 가격이 30%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한율도 베스트셀러 '율려원액'에 대해 기존 70㎖(6만5000원)에서 120㎖(8만5000원)로 용량을 늘린 지난해 10월 출시했다. 기존 제품보다 약 24% 가량 저렴한 셈이다.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베스트셀러 윤조에센스 또한 대표적 대용량 화장품이다. 11만5000원 대(90㎖)인 대용량은 8만5000원대(60㎖)인 일반제품에 비해 용량 대비 가격이 10% 가량 저렴하다.

해외 브랜드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랑콤은 레네르지 멀티-리프트 리페어바-플라즈미 코스메틱 워터 큰 용량 200㎖ 6만2000원에 판매했으나 대용량을 한정판으로 선보이면서 34% 저렴한 400㎖ 8만2000원에 판매했다. 어드밴스드 제니피끄 세럼은 30㎖ 11만원이지만 75㎖는 18만9000원이라 대용량으로 구입하면 약 30%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정혜인기자 hiyun@

혼수 비용 절약… '가전 렌탈' 각광

주방 후드, 의류 관리기 등 관리서비스까지 제공

최근 혼수시장에 소유의 가치를 재해석하는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결혼 초기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전·가구 등의 신혼살림을 소유하는 대신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 경제적인 실속을 챙기려는 '혼수 프리(free)'족이 떠오르고 있다.

한국렌탈협회에 따르면 국내 렌탈 시장 규모(렌터카 제외)는 2006년 3조원에서 2008년 4조5000억원, 2013년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확대되고 있고 국내 렌탈 전문업체는 약 2만4000개로 추산된다. 특히 혼수용품을 다루는 생활가전 렌탈 업체는 1100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트렌드에 따라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렌탈 업계들의 움직임 역시 분주해지고 있다. 가사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를 겨냥해 제품 렌탈과 함께 유지 및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추세다.

◆렌탈 후 관리 서비스 제공

주방 후드 전문 기업 하츠는 '스마트쿡 시스템'(사진)을 통해 '스마트 후드 휴어'와 '스마트쿡 전기레인지'를 렌탈해주고 후드 전문가인 '하츠맨'의 방문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 후드 휴어'는 '후드 자동 연동 시스템' 기능을 통해 요리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후드가 켜지고 스스로 풍량을 조절하며 평소에는 공기청정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후드전문가인 '하츠맨'이 4개월마다 직접 방문해 후드 필터만 교체 및 내·외부 청소를 해주며 1년에 한 번 팬모터 케이싱과 흡음재를 교체해 새 제품과도 같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LG전자의 '스타일러'는 사회생활을 하는 신혼부부가 별도의 손질 없이도 옷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트롬 스타일러'에 렌탈서비스와 케어 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다. 트롬 스타일러는 의류관리기로 양복이나 니트 등 세탁하기에 번거로운 의류를 새 옷처럼 관리해준다. 스타일러 렌탈 후 LG 헬스케어 매니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4개월마다 필터 세척·내부 청소 및 살균·향기시트 교환 등 다양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코웨이는 '코웨이 매트리스'를 렌탈해주고 '홈케어닥터'의 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코웨이 매트리스는 매트리스 타퍼의 교체가 가능해 매트리스 위생관리가 용이하고 매트리스 내부 통풍을 위해 허브향의 천연 아로마향을 지닌 '케어가드'를 장착해 숙면을 도와준다. 코웨이 위생관리 전문가 '홈케어닥터'가 4개월에 한 번씩 가정집에 방문해 정기적인 케어가드 교체 및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오염도 측정부터 UV살균까지 7단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 절감 효과도 있어

교원은 수돗물을 전기분해한 살균수로 사용해 도기와 노즐을 자동 세척하는 '와우비데'를 렌탈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와우비데는 자극적인 냄새와 피부 자극 없이 60초간 살균수를 분사해 5분 내 99.9%의 세균을 박멸한다. 세정 기능 사용 시 순간적으로 온수를 만들어내는 '순간 온수 모듈'로 평균 12W의 전력량을 감소시켜 월 3660원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 또 인체감지센서와 빛감지센서를 적용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절전모드로 자동 전환돼 경제적인 비용 절감효과도 얻을 수 있다.

/강혜인 기자 hkang0404@metroseoul.co.kr

'제8회 국제만화상' 작품 공모

일본 만화가와의 교류 및 출판사 방문 기회 제공

국제만화상(실행위원장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이 다음달 31일까지 작품을 모집을 시작한다.

국제만화상은 해외에서의 만화문화 보급과 만화를 통한 국제문화교류에 공헌하고 있는 만화작가를 널리 알리고 지바하기 위해 2007년 5월에 창설됐다.

일본 국외에서 제작된 24페이지 이상의 만화 작품 중 2011년~2014년에 만든 것이면 응모할 수 있다.

이미 발표된 작품도 응모 가능하나 과거 국제만화상 수상·입상작은 응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국외의 출판사가 응모할 경우 작가에게 응모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1인당 한 번, 한 작품만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연속된 작품으로 복수 응모할 경우 한 작품만 심사대상이 되고 중복 응모일 경우에는 두 번째부터 전부 무효 처리 된다.

응모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나 일본 사서함에 작품을 보내면 된다.

응모시에는 작품을 종이로 2부 제출해야 하며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응모표를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단 입상 후보 작품에는 부수 추가 및 데이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응모작품 중 최우수작품에 '국제만화상 최우수상'이 그 밖의 우수한 세 작품에 '국제만화상 우수상'이 각각 수여된다.

수상자는 국제교류기금의 초빙으로 시상식 일정에 맞춰 일본을 방문해 일본 만화가와의 환담회, 출판사 방문, 작업 시찰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정혜소 기자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내선110, 282)

기지개 켜는 '수면용품' 시장

첨단 과학·기술 등 적용

현대인들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환경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의 증가로 수면장애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면장애 환자는 2008년 22만8000명에서 2012년 35만7000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약 6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오픈마켓 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숙면 관련 용품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70%나 증가했다. 관련 업계들도 잠 못 드는 소비자를 잡재우기 위해 기능과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수면용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매트리스는 숙면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으로 최근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기능성 침대가 숙면 도우미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에르고슬립'(사진)은 모터의 힘으로 각도를 조절하는 클릿폼 위에 폼 매트리스나 천연 라텍스가 탑재된 모션침대를 판매하고 있다. 무선 리모컨으로 상·하부의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 상체를 살짝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하는 등 숙면에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돕는다.

베개를 섞지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체 조건과 수면 습관에 맞춰 베개를 바꾸는 것이 현명하다. 침구 브랜드 소프라움의 최근 출시한 '파이핀로우'는 구스다운으로 충전된 90%의 상단에 하단은 비어 있는 이중구조로 구성돼 수면 자세나 취향에 따라 파이프나 구스퍼터 등 충전물을 선택해 삽입할 수 있다.

또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들어진 아로마 제품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을 준다. 로사퍼시픽 베리식스의 '3s 퍼퓸 베개 잠수'는 향수와 아로마테라피의 개념을 결합한 제품으로 잠들기 전 베개나 침구에 뿌리면 긴장을 완화하고 심신을 차분하게 만들어 숙면을 돕는다.

수면장애가 심각하다면 더 전문적인 수면 제품을 사용해보는 것도 좋다. 고급 형태로 제작된 '아이스캔'은 안경을 쓰는 것처럼 착용하기만 하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수면테라피·셀프 테라피·음악 등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수면장애를 겪고 있거나 숙면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이며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거나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데도 효과적이다.

/정혜인 기자

LG생활, '온더바디 퍼퓸 바디워시' 출시

LG생활건강은 향수를 뿌린듯한 풍부한 퍼퓸향이 피부를 감싸주고 보습 성분이 피부 결을 촉촉하게 가꿔주는 '온더바디 퍼퓸 샤워 바디워시'(사진) 3종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LG생활건강의 향 전문연구소인 '센베리퍼퓸하우스'의 기술력을 적용해 샤워 시 미세한 향기 입자가 수증기를 타고 퍼져나가 향수를 뿌린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또 부드러운 거품이 피부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해 산뜻하게 마무리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클래식 핑크, '바이올렛 드림', 오렌지 판타지아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정혜인 기자

나는 배·능·인 이다

배우 출신 예능인 전성시대

배우 출신 예능인 '예능인'의 성공적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 하는 배우에게 예능 출연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웃기는 이미지로 각인되면 차기작 선정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중과 친근해지는 통로인 예능을 영리하게 활용한 스타가 있다.

배우 이서진과 송지효는 각각 tvN '꽃보다 할배'와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이하 '런닝맨')을 통해 본업인 연기와 부업인 예능을 모두 잡으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차세대 예능인도 기대된다. SBS '일요일이 좋다-룸메이트'에 출연하는 배우 이동욱과 KBS2 파일럿 프로그램 '나는 남자다'의 임원희가 그 주인공이다.

/전숙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대중과 친근 통로 '두 마리 토끼잡기'… 성공 행보

◆ '꽃할배' 짐꾼, 이서진

이서진은 '꽃보다 할배'(이하 '꽃할배')에서 할배들의 짐꾼으로 활약하고 있다. 1999년 SBS 드라마 '파도' 위의 집'으로 데뷔한 이후 고정 출연한 첫 예능 방송이며 시청자에게 반전 매력을 선사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에게 '꽃할배'는 인간 이서진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계기였다. 뉴욕대 경영학과 출신에 금융가 집안의 아들로 알려진데다 반듯한 배우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데뷔 후 맡은 역할도 규칙하다. 드라마 '다모', '불새', '이산'에 이어 현재 방송 중인 KBS2 주말극 '참 좋은 시절'에서 때론 순정적이나 가끔은 묵직해서 우울한 느낌까지 드는 인물을 그려왔다.

그러나 '꽃할배'에선 그룹 소녀시대 써니와의 만남에 설레거나 써니와 한아 중 누가 더 좋은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으로 이서진과 대중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다.

◆ '런닝맨' 최강자, 송지효

송지효는 SBS '런닝맨'에서 남성 출연자 6명을 능히 혼자 대적할 정도로 역할을 잘 소화하고 있다. 영리한 두뇌로 남성과의 대결에서 지략을 발휘하며 가장 많이 우승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가 유재석·하하 등 예능 고수 사이에서 빛을 낼 수 있었던 건 파트너 개리와의 호흡 덕분이기도 하다.

개리는 송지효와 '월요커플'로 짝을 이뤄 송지효가 여성이었다는 점을 시청자에게 상기시켜준다. 송지효를 향한 개리의 달콤한 말과 이에 부끄럽게 반응하는 모습은 시청자에게 큰 재미를 준다.

송지효에게 '런닝맨'은 배우로서의 존재감도 발휘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됐다. 영화 '여고괴담3-여우계단'(2003), 드라마 '궁'(2006), 영화 '쌍화점'(2008) 등에 출연했지만 배우로서 각인된 작품이 부족했던 게 솔직한 평가다.

그러나 이는 이후 출연한 tvN 금토극 '응급남녀'에서 동심녀를 들려방 시선과 전남편과의 재결합 등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며 배우 송지효를 제대로 보여줬다. 작품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연일 화제가 됐다.

◆ 차세대 예능인 이동욱·임원희

떠오르는 예능인의 기세도 만만찮다.

배우 이동욱은 SBS '룸메이트'에서 개그맨 조세호와 한방을 공유하게 됐다. 제작진의 녹화 후기에 따르면 두 사람이 의외의 개그콤비를 이뤘다고 한다.

앞서 SBS '강심장'에서 첫 진행 도전임에도 예능감과 유려한 말솜씨를 뽐내 맹활약한 바 있어 '룸메이트'를 통해 어떤 매력을 선보일지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개성파 배우 임원희는 KBS2 파일럿 프로그램 '나는 남자다'에서 어색한 진행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유재석·노홍철 등 진행에 일가견이 있는 방송인들과 달리 대본만 잡고 어찌 할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오히려 신선하게 와 닿은 것이다. 임원희는 지난해 MBC '무한도전-여름예능캠프'에 출연해 원초적인 개그 분장으로 활약했고 현재 SBS '정글의 법칙 in 보르네오'에선 어떤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면모로 긍정적인 힘을 전하고 있다.

이동욱

임원희

아날로그는 따뜻합니다

종이는 [illegible]입니다
종이는 아날로그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신문을 통해 따뜻한 세상을 봅니다
종이는 따뜻합니다
아날로그는 따뜻합니다

AbitibiBowater의 새로운 이름 Resolute Forest Products!

'개과천선' 4인4색 포스터 공개

사진 한 장에 캐릭터·스토리 함축

오는 30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MBC 새 수목미니시리즈 '개과천선'의 공식 포스터(사진)가 공개됐다.

'개과천선'은 승소율 100%를 자랑하는 거대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 김석주가 우연한 사고로 기억을 잃은 뒤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사건을 수임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휴먼 드라마다.

포스터 속 인물들의 표정에서 각자의 캐릭터와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주인공 김석주(김명민)는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듯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를 냉철한 변호사로 키워 냈지만 후에 대립각을 세우는 로펌 대표 차영우(김상중)는 계단 위에 서서 석주를 돌아보고 있다. 영우의 로펌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이지윤(박민영)은 로스쿨 출신의 정의감 넘치는 젊은이다운 당찬 미소를 띠고 있다.

제작진은 "계단을 내려오는 석주와 지윤, 계단을 오르는 영우의 모습에서 세 사람이 가는 길이 다름을 상징했다"며 "또 석주를 돌아보는 영우의 모습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식 포스터는 각 인물들과 서울의 야경을 담아 드라마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전달했다. 이 포스터에는 석주의 약혼녀이자 재벌가의 외손녀 유정선(채정안)도 등장한다. 정선은 석주와 정략적으로 약혼한 사이지만 점차 석주를 사랑하게 되면서 스스로 자아를 찾아나서는 인물이다. /정지은기자

무한도전 스피드 레이서 특집 /MBC

'음주운전' 길 '무한도전' 하차

레이싱 특집 방영도 힘들듯

그룹 리쌍의 길(본명 길성준)이 음주운전으로 MBC '무한도전'에서 하차하게 됐다.

길은 23일 소속사 리쌍컴퍼니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팬들과 그간 사랑해준 분들에게 실망을 안긴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무한도전' 측에 자진 하차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무한도전' 제작진은 "길의 의사를 받아들여 당분간 6인 체제로 녹화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모두가 슬픔과 무력감에 벗어나기 힘든 시기에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 길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국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리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시청자들이 느낄 실망감이 얼마나 클지 짐작하기에 제작진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길이 촬영을 마친 '무한도전' 촬영분에 대해서 제작진은 "시청자가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신중하게 조율해서 방송할 예정"이라며 "특히 최근 촬영을 마친 특집 중 일부는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첫 장기 프로젝트였던 '스피드 레이서' 특집의 방영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길은 이날 오전 0시40분께 합정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길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09%였다.

/김민준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트로트 여왕의 역사 노래한다

주현미 데뷔 30주년 공연

트로트 여왕 주현미(사진)가 데뷔 3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한다.

주현미는 다음달 8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데뷔 30주년 기념 주현미 애버어낙 디너쇼'를 연다. 중앙대 재학 시절인 1981년 약대 음악 그룹 보컬로 MBC 강변가요제에 출전해 입상했고 1984년 메들리 음반 '쌍쌍파티'를 발표하며 데뷔했다.

1985년 발표한 1집 수록곡 '비 내리는 영동교'로 단번에 스타 가수 반열에 올랐다. 화교 출신 약사라는 가수로서 특이한 이력과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 차별화되는 청량한 목소리와 밝은 미소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재즈밴드 프렐류드와 협연 무대를 열었고 2008년 힙합 뮤지션 조PD, 2009년 소녀시대 서현 등 다른 장르의 후배 가수들과 공동작업을 하며 음악 영역을 넓혀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비 내리는 영동교' '신사동 그 사람' '짝사랑' '잠깐만' 등 히트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공연기획사는 "트로트의 르네상스를 주도한 주현미씨가 대표곡과 음악적인 도전을 망라한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며 "히트곡 퍼레이드는 가슴 속에 새겨진 소중한 추억을 다시 꺼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주현미는 이번 공연 이후 30주년 기념 투어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illegible]

'밀회' 유아인(왼쪽)과 그의 대역 피아니스트 송영민(오른쪽) /JTBC

선재 연주 위해 매일 9시간 연습

송영민, '밀회'서 유아인 대역

JTBC 월화극 '밀회'에서 배우 유아인은 제대로 된 레슨 한 번 받아보지 못했어도 명문 음대생들보다 뛰어난 천재 피아니스트 이선재를 연기한다.

이선재의 완벽한 피아노 연주 장면 뒤엔 유아인 대역 피아니스트 송영민의 노력이 있었다.

송영민은 스스로를 "(이선재 캐릭터처럼) 타고난 천재가 아닌 성실한 노력파"라며 "하루에 평균 9시간 이상 매일 연습해서 한 곡을 무대에 올리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재처럼 치기 위해 무척 많은 노력을 했다"며 "선재는 힘든 환경에서 피아노를 쳐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감수성에 슬픔이 깔려있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힘들게 피아노를 쳐왔기 때문에 그러한 감수성에 비슷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극중 이선재는 악보에 적힌 음과 그 2도 위의 음의 빠른 연속적인 반복인 '트릴'에 익숙지 못한 것으로 표현되는데 송영민은 일명 '하점 트릴'을 자연스럽게 틀리기 위해 엄청난 연습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이전까진 많은 곡을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해서 라이브로 연주해 본 경험이 있다"며 "사람들이 많은 데서 NG없이 연주하고 또 그대로 동시 녹음돼 TV에 나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떨린다"고 전했다.

이어 "대역 피아니스트는 굉장히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니 희열감도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1, 22일 결방한 '밀회'는 오는 28일부터 정상 방송될 예정이다. /김지민 기자

신영옥 음악회 '명품 공연' 주목

온가족 즐기는 고품격 클래식… 세월호 추모 노래도

소프라노 신영옥(사진)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과 가곡 공연가의 '명품' 공연으로 주목받고 있다.

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릴 이 음악회는 가족이 다함께 볼 수 있는 콘서트다. 이 시대 가장 아름다운 리릭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로 꼽히는 신영옥이 모처럼 관객과 마주해 감동의 무대를 선보인다.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여시경 음악감독의 지휘로 펼쳐질 이번 음악회는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드보르작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등 어버이날에 어울리는 푸근하고 따뜻한 레퍼토리로 채워진다.

바이올리니스트 임지희와 하피스트 곽아림이 협연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추모의 시간도 마련된다. 주최 측은 "첫곡과 앵콜곡은 추모곡으로 대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영옥은 소프라노 중에서도 섬세하고 화려한 음색을 지녔다는 평을 지닌 음악가다. 플라시도 도밍고·루치아노 파바로티·레오 누치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공연했다. 또 영국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 코벤트 가든, 프랑스의 바스티유 오페라, 니스 오페라, 쾰른 오페라 등 수많은 오페라 무대의 주역으로 전 세계를 누볐다.

공연 예매는 SAC 티켓(www.sacticket.co.kr 02-580-1300)과 인터파크(ticket.interpark.com 1544-1555)에서 할 수 있으며, 티켓 가격은 R석 20만원, S석 12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C석 2만원이다. 각종 할인이 가능하며 초등학생 이상 입장할 수 있다. 문의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www.primephil.net 031-392-6422).

/박지원기자 taili427@metroseoul.co.kr

'표적', '포인트 블랭크'와 차이는

원작, 사건에 초점… 리메이크, 캐릭터 중심

30일 개봉할 영화 '표적'(왼쪽 사진)이 원작인 프랑스 범죄 액션 영화 '포인트 블랭크'(오른쪽)와의 비교 포인트를 공개했다.

2011년 국내에서 다양성 영화로 개봉한 '포인트 블랭크'는 당시 관객으로부터 빠른 사건 전개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박감으로 호평을 받았다. 원작이 사건 전개에 초점을 맞췄다면 '표적'은 캐릭터의 관계에 중점을 둬 재구성됐다.

'포인트 블랭크'는 아내가 납치 당한 간호사 사무엘(질 를르슈)을 중심으로 위기에 처한 킬러 휘고(로쉬디 젬)가 가세, 두 남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하나의 타깃을 쫓는 이야기다. 반면 '표적'은 의문의 살인 사건에 휘말린 남자 여훈(류승룡)을 중심으로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를 도와야 하는 의사 태준(이진욱), 그리고 이들을 쫓는 두 형사 송반장(유준상)과 영주(김성령)의 추격전을 담아 더욱 긴박한 이야기로 만들었다.

류승룡의 첫 액션 연기 도전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표적'이 원작과 차이를 보이는 또 다른 부분은 액션이다. '포인트 블랭크'는 빠른 컷 전환과 휘고와 기교 넘치는 액션으로 볼거리를 제공했다면 '표적'은 묵직하고 진한 감성이 담긴 액션을 선보인다.

또 '표적'은 한국적 정서에 맞게 리메이크 됐다. 원작 속 주인공 사무엘의 직업은 간호사였다. 하지만 남자 간호사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 정서에 맞게 극중 태준의 직업은 레지던트 의사로 변경됐다. 뿐만 아니라 '표적'은 끈끈한 동료애와 가족애를 담아 한국 관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방황하는…'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정솔학원 손배소 계획

'방황하는 칼날'

영화 속 청솔학원 명칭 사용으로 비롯된 '방황하는 칼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청솔학원을 운영하는 이투스교육이 '방황하는 칼날'의 제작사 에코필름, 배급사 CJ E&M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를 본 사람들이 청솔학원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투스교육의 학원으로 오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영화 마지막에 원작이 소설임을 알리는 자막이 두 차례나 표시되는데다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학원과 영화 속 학원의 위치도 서울과 강릉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투스교육은 "'방황하는 칼날'이 자사가 운영하는 청솔학원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과 살인범 은닉 업체로 묘사해 학원 이미지를 실추했다"며 14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이투스교육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선영기자

'고질라' 욱일기 포스터 삭제

"행사용… 추가 사용 없다"

다음달 15일 개봉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고질라'가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활용한 포스터를 선보여 한국 영화팬들에게 뭇매를 맞자 즉각 삭제했다.

'고질라' 측은 23일 "해당 포스터는 공식 포스터가 아닌 행사용으로 사용된 것"이라며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게재된 포스터를 삭제 중이며 워너브라더스 본사에 요청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포스터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만화 박람회 원더콘 행사에 등장했고 미국 최대 영화 사이트 IMDB에도 게재돼 한국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IMDB에선 현재 삭제된 상태다.

'고질라'는 괴수의 등장으로 인류의 재난이 시작되는 일들을 그린 영화다.

/박선영기자

욱일기를 활용한 '고질라' 포스터

사연이 있는 미국식 콩밥 '호핑존'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미국에서도 콩밥을 먹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핑 존(Hopping John)이라는 음식이다. 물론 미국인 전체가 모두 먹는 것은 아니고 주로 남부지방에서 발달했다. 쌀밥에 콩과 양파 등 야채 재료를 넣고 소금이나 향신료와 함께 볶아 먹는다. 쉽게 말해 콩밥으로 만든 볶음밥이다. 우리처럼 쌀밥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가 아닌데 왜 미국에 콩밥이 다 있을까?

미국 콩밥에는 어두운 역사가 있다. 옛날 우리도 감옥에서 콩밥을 먹었던 것처럼 미국식 콩밥 호핑 존은 아프리카에서 끌려 온 흑인 노예들이 먹었던 음식이다. 물론 지금은 남부에서 고루 먹는데 남북전쟁이 그 계기가 됐다.

혹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옛 영화를 기억하시는지? 북군이 남부 조지아에서 도시를 불태우고 민가를 약탈하는 장면이 있다. 영화 속 이야기지만 실제 남부에서 다반사로 일어났던 일이다. 당시 북군이 농지와 식량을 불태우는 초토화 작전을 펼쳤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불태웠던 북군이 유일하게 남겨 놓은 것이 동부 콩과 순무 잎사귀였다. 완두콩과 강남콩은 모두 빼앗아가고 동부콩만 남긴 이유는 당시 미국에서 동부 콩은 사람이 먹는 곡식이 아니라 동물이 먹는 사료였기 때문이다. 순무 잎사귀 역시 수거 지로도 만들지 못하니 굳이 빼앗아갈 이유가 없었다.

철저하게 파괴된 폐허 속에서 목숨만 건진 남부 주민들은 흑인 백인 가릴 것 없이 가축 사료인 콩과 밭에 버려진 순무 이파리를 먹고 버티며 살아남았다. 미국식 콩밥인 호핑 존이 발달한 배경이다. 덕분에 호핑 존은 지금 행운을 부르는 음식이 됐다. 특히 미국 남부에서는 새해에 미국식 콩밥을 먹으며 행운을 기원하는 풍습이 생겼다.

당시 미국 남부 사람들은 비비안 리가 분장한 영화 속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처럼 중얼거리며 눈물 콧물을 섞어 미국식 콩밥을 먹었을 것이다. "내일 생각해야지.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테니까." "새빨간 거짓말! 나라가 슬픔에 빠졌다." 그래도 참고 견디며 내일을 맞아야 한다.

/음식문화평론가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엔시 스도쿠 라이트」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돌싱 남자 사귀는데 헤어질까 재물집착 강하고 인연도 없어

낙관이 여자 70년 7월 13일
남자 78년 1월 11일

Q 재혼으로 사귄 남자가 애 둘 있는 돌싱입니다. 8개월 정도 만났는데 일주일 전 집안에 일이 생겼다고, 부모님 아프시다고 당분간 잘 참하고 있으라고 자꾸 설명서 전화를 하네요. 과연 저의 결혼상대가 맞나요? 돈이 다른 곳으로 새는 손금이란 얘기도 들은 적 있습니다.

A 부부가 화목할려면 서로 성격이 맞아야 합니다. 귀하는 상관(傷官) 관을 치고 내가 생해주는 오행의 기세가 머리쪽이 포함되어 자신의 재능을 과신하고 타인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인색한 경향도 보입니다. 다정이 병이 되어 내 것을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남자는 칠전팔기(七顚八起)형으로 진심이 없어 사귀게 할 가능성이 높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탕화살과 부부궁에 원진살이 끼어 막상 헤어지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며 고민스럽지만, 비교하자면 귀하보다는 남자분이 귀하를 만나서 사모정(死墓絶) 죽어서 오지로 들어가 단절됨으로 가는 형국이라 괴롭습니다.

목공인테리어 맞는 업종인지 전직가능 부동산투자 하세요

우주관류 남자 73년 10월 22일 음력 유시

Q 현재 목공인테리어사업(소품 및 가구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맞는 업종인지, 앞으로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 구름에 가린 태양과 같은 형상으로 수면에 뒤에 머리고 마음속에는 지혜와 오사(五事)가 숨어 있어 단점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세를 잡습니다. 곧하지 않는 재물운도 있고 어울 때는 순한 양과 같지만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을 지닌 것이 단점입니다. 관고(官庫)에 천라지망(하늘과 땅에 그물을 침)으로서 군경검찰 계통에서 출세할 수 있는 명인데 군에 사업을 한다면 조경, 전열기, 토건업과 인연이 있습니다. 목공 인테리어도 천직이 될 수 있으며 재운이 녹(祿)지로 가고 있어 괜찮으니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다 버는 대로 문서에 묻어두어야 하니 부동산에 투자를 해 놓으면 노후가 편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4월 24일 (음 3월 25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나갈 때와 물러날 때 잘 파악하라. 60년생 금할수록 평정심 필요하다. 72년생 한 순간만 참으면 허투가 편안~ 84년생 생각도 못한 길한 일이 생긴다.

소 49년생 자손 도울 일이 생긴다. 61년생 자생하는 수익이 늘어 유리~ 73년생 인소가 다가오고 소가 들어온 격이다. 85년생 구설수 있으니 이성의 유혹을 조심하라.

호랑이 50년생 남을 도울 수 있어 기쁘구나. 62년생 고지식한 생각은 일만 꼬이게 한다. 74년생 운기가 길하니 적극 움직여라. 86년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구인이 나타난다.

토끼 51년생 우유부단한 자신이 아쉽다. 63년생 문서와 관련된 일은 직접 챙겨라. 75년생 직장인은 큰소리 칠 일이 생긴다. 87년생 동업할 사람이 생겨 즐거우니.

용 52년생 어젯사람이라고 얕보지 말라. 64년생 기다리던 소식을 듣는다. 76년생 자금문제 권고유 응할 때 대책 서둘러라. 88년생 기회가 왔으니 빨랑빨랑 움직이면 좋다.

뱀 53년생 결정할 일은 미루는 게 좋다. 65년생 억은 선이 점목될 때 승리하는 법~ 77년생 발표나 제안하면 유리한다. 89년생 친구 도와 줄 수 있어 행복한 하루~

말 42년생 자녀 덕에 입담이 인기 쑥~ 54년생 호랑이 굴에 호랑이가 없는 격이다. 66년생 상처 추스른 다음 재기 노려라. 78년생 반가운 소식이 문 앞에 당도한다.

양 43년생 냉정해야 손해가 없다. 55년생 자녀 일의 간섭은 잘 해야 본전~ 67년생 주변의 기대 의식하면 조급증 생긴다. 79년생 우려한 일은 전화위복되니 걱정 말라.

원숭이 44년생 내 몫이 아니면 바라지 말라. 56년생 자부심 가져도 좋은 일 생긴다. 68년생 논리와 설득이 막힐 때 큰소리 나오는 법~ 80년생 유흥에 재미 붙이면 낭패 본다.

닭 45년생 애로사항 사라진다. 57년생 자녀 혼육선생님 역할에 충실할 것. 69년생 금자를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81년생 먹구름은 사라지고 꽃피는 청춘의 꿈~

개 46년생 꿈이 이상하면 조용히 살거라. 58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 70년생 비관론자의 말은 참고만 할 것. 82년생 잘 하는 분야만 집중하는 게 이롭다.

돼지 47년생 자녀 일은 결단이 필요하다. 59년생 욕심 부리서 걱정거리 만들지 말라. 71년생 충고도 길면 잔소리가 된다. 83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경계하라.

최경주, 단원고에 1억원 기부

프로골퍼 최경주(44 SK텔레콤·사진)가 세월호 침몰사고로 슬픔에 빠진 안산 단원고에 1억원을 기부했다.

최경주재단은 23일 "큰 위기에서 살아 돌아온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이 지속적인 관심 속에 심리 치료 등 다양한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지속적 보살핌 기금'으로 1억원을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경주는 "제 큰아들과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꿈을 펴보지도 못한 채 희생당한 사실에 애통함을 감출 수가 없고 유가족에게도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낙담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생존자와 충격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기부 이유를 설명했다.

최경주재단은 지난해 안산의 지역 아동센터 3곳에 '꿈의 도서관'을 열어 안산과 인연을 맺었고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구조 현장 자원봉사에 동참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

류현진이 23일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상대로 힘차게 투구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퀄리티스타트>

류현진 QS… 숨고르기

6이닝 2실점 방어율 2.12… 팀은 패배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6·LA 다저스·사진)이 올시즌 홈구장 첫 승 신고는 실패했지만 패전은 면했다.

류현진은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미국 프로야구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홈경기에 선발등판해 6이닝 동안 9안타와 볼넷 2개를 허용하며 2실점했다.

비교적 많은 안타를 맞은 류현진은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으로 실점을 최소화했다. 경기 전 마운드에서 세월호 침사 희생자들을 향해 묵념을 하고 투구를 시작한 류현진은 1회초 공 9개만으로 까다로운 필라델피아 타선을 삼자범퇴 처리했다.

미지근한 수비 실책과 팀 타선의 지원을 받지못해 결국 무릎 꿇고 말았다. 팀이 1-2로 뒤진 7회초 크리스 위스로와 교체돼 패전투수가 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7회말 공격에서 디 고든의 빠른발과 대타 저스틴 터너의 적시타로 2-2 동점을 만들어 류현진의 패전은 사라졌다. 하지만 다저스는 연장 10회초 수비 실책으로 결승점을 내줘 2-3으로 패했다.

삼진 3개를 곁들이며 투구수 106개를 기록한 류현진은 66개의 스트라이크를 꽂으며 공격적인 투구를 했으나 지난 12일 애리조나 경기부터 이어진 무실점 행진이 18이닝에서 끝났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1.93에서 2.12로 조금 올라갔다.

류현진의 3승은 모두 원정경기에서 따냈으며 홈구장에서는 지난 5일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2이닝 동안 8실점(6자책)해 1패만을 기록 중이다.

한편 필라델피아에 2연패를 당한 다저스는 12승9패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지켰으나 2위 콜로라도 로키스(12승10패)에 반게임차로 쫓기게 됐다. /정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김기태 LG 감독 사퇴

조계현 코치 감독 대행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김기태(45·사진) 감독이 사퇴했다. 역대 프로야구에서 시즌 돌입 후 네 번째 최단기간 자진사퇴다.

LG는 23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를 마친 뒤 "김감독이 성적 부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조계현 수석코치가 당분간 감독 대행을 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감독은 23일 경기에 불참했고 LG 관계자는 "감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경기에 나오지 못했다. 아직 소재 파악은 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12년 LG 사령탑으로 부임해 특유의 카리스마로 LG 선수단을 장악했고 지난 시즌 LG를 정규리그 2위로 이끌어 11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시키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올 시즌 초반부터 팀은 거듭 연패에 빠졌고 경기 전날까지 4승 12패 1무승부로 부진한 기록을 이어갔다.

LG는 "구단이 지난해 좋은 성적을 내고 올해 판매 팀 타격 1위에 오르는 등 선수단이 정비돼 있어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믿는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해 몹시 안타깝다"고 밝혔다. /신종진기자 jeusin@

AT 마드리드 vs 첼시 챔스 무승부

내달 1일 결승 진출팀 결정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 첼시(잉글랜드)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득점 없이 비겼다.

두 팀은 23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비센테 칼데론에서 열린 경기에서 90분간의 공방 끝에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경기는 홈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수비를 두텁게 세운 첼시의 골문을 쉴 새 없이 두드리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볼 점유율에서 69-31로 앞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슈팅 수에서도 25-5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홈에서 승리를 얻기 위한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첼시는 2차전 홈 경기에서 승부를 보려는 듯 수비 위주의 축구를 구사하면서 간간이 역습을 하는 정도로 대응했다. 결과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무수한 슈팅 가운데 골문으로 향한 유효 슈팅은 단 4회에 그쳐 첼시의 2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첼시는 수비 전략으로 원정에서 비교적 성공적이라 할 무승부를 기록했으나 주전 골키퍼 페트르 체흐와 수비수 존 테리가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조제 무리뉴 감독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체흐는 이른 시간인 전반 15분 부상했지만 교체돼 들어온 마크 슈워처가 남은 시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예봉을 잘 막아냈다.

두 팀은 내달 1일 첼시의 홈인 영국 런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2차전을 치러 결승 진출팀을 가린다. /정성운기자

AT 마드리드의 디에고 고딘(왼쪽)과 첼시의 페르난도 토레스가 치열하게 볼을 다투고 있다. /AP 연합뉴스

'부상' 추신수 2경기 결장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가 왼 발목 부상의 여파로 2경기에 결장한다.

23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오코 콜리시움에서 열린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 나오지 않은 추신수는 24일 3연전 마지막 경기도 거른다. 팀 휴식일인 25일을 보낸 뒤 26일 시애틀 매리너스전에 출전할 예정이다.

추신수는 22일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7회 내야 땅볼 타구를 친 뒤 1루에 전력질주 하다 베이스를 밟은 왼쪽 발목에 이상을 호소해 교체됐다. 엑스레이와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골절은 없고 심한 부상도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

텍사스 구단은 추신수를 부상자 명단에 올리지 않았다. 텍사스의 테드 레빈 부단장은 "의료진으로부터 부상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다"면서 "추신수가 곧 필드에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23일

■목동

팀	1-3회	4-6회	7-9회	계
롯데	302	302	000	10
넥센	000	000	011	2

[illegible]

■문학

팀	1-3회	4-6회	7-9회	계
NC	210	100	100	5
SK	000	010	002	3

[illegible]

■대전

팀	1-3회	4-6회	7-9회	계
두산	210	002	040	9
한화	002	021	100	6

[illegible]

■대구

팀	1-3회	4-6회	7-9회	계
LG	000	210	000	3
삼성	100	312	02X	7

[illegible]

AFC 챔피언스리그 전적 23일

팀			팀
서울	2	1	센트럴
조호	0	0	부리람

[illegible]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회

지휘 | 여자경
바이올린 | 임지희
하프 | 김아람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4. 5. 8(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metro 메트로신문사
주관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R석 20만원 / S석 12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 C석 2만원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SAC Ticket
www.sacticket.co.kr 02 580-1300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 1555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
031-392 6422
www.primephil.net